

# 함께가는 여성

2011. 3 · 4 [www.womenlink.or.kr](http://www.womenlink.or.kr)

202  
호

## 민우ing

- 103번째 세계여성의날 민우회 회원참여 프로그램
  - 견적내기프로젝트 성형 OTL
  - 정부여 제발, 돈이 아니라 의미를 받아라!

## 특집

불안 - 불안을 바라보는 세가지 시선





3월3일 삼성역  
3월5일 서울시청광장  
3월6일 청계광장  
3월8일 삼성역



# 주사위는 던져졌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민우회가 거리로 나갔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경계를 허무는  
'무경계라인댄스'에 몸을 들썩이고  
환한 얼굴로 주사위를 던진 순간  
이미 당신과 민우회 사이의 경계는 허물어 졌다는 것

(거리에서 만난 한 분, 한 분 모두 반가웠어요.)

# 함께가는 여성

2011. 3·4



02 민우ing

- 마치(March) 내가 여성인 듯 '체인지 가든'
- 견적내기프로젝트 성형 OTL
- 정부여 제발, 돈이 아니라 의미를 받아라!

11 민우스케치

12 민우칼럼 창

14 생생한 시각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 구제역, 무엇이 문제인가?
- 여성의 편안하고(安) 온전할(全) 권리를 위하여
- 미션3.0 : 사회에서 실종된 여성 찾기



22 기획

불안

- 불안하면 좀 어때
-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한 것일까
- 나, 우리의 불안을 함께 헤아리는

32 나의 삶 나의 이야기

- 여행을 기억하다
- 결혼식, 정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36 모람풍경

나의 찰떡궁합 모람을 찾아서

38 마포나루에서

나이듦에 대하여

40 문화산책

이른 봄, <만추>를 보다

42 생협이야기

그게 최선입니까?

43 9개의 시선

우리 대표를 소개합니다

46 민우알림

\* '함께가는 여성'의 필자명은 실명과 필명을 함께 씁니다. 단, 필명만 있는 것은 필자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03번째 세계여성의 날 민우회 회원참여 프로그램

# 마치(March) 내가 여성인 듯 '체인지가든'

지은정(모후아) ● 한국여성민우회 반차별·회원팀

3월이 되었는데 아직 거리풍경은 겨울이네요(작년 기억을 떠올리니 4월에 폭설이 왔었군요). 아직은 푸릇푸릇하지 않은 나무들도 그렇고,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공공 여민 사람들의 옷차림도 그렇고, 아직은 바람이 차서 손을 내놓고 다닐 수 없는, 아직은 봄이 아닌 3월. 그 공공 여민 사람들의 옷 틈 속으로, 마음속으로 민우회가 다가가려 '고민고민' 한 술한 시간들. 1월 총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103번째 맞이하는 여성의 날, 무엇을 통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공감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 여성의 날은 3월

March, march, march... 마치, 마치, 마치? 마치 여성인 듯? 다양한 여성의 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순서를 마련해보면 어떨까?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차별상황, 차별경험을 머릿속에서만 그려보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해보면 더 와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체인지가든'은 시작되었습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여성(연인, 가족, 친구, 이웃, 지인 등)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차별경험을 겪고 있는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죠. '내 친구가 직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네... 그 친구 상사가... 내 애인이 택시를 탔는데 말이지... 결혼한 친구가... 언니가... 누나가...'

등등 타인의 경험들은 많이 듣고, 또 곁에서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이 성차별상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고 나의 상황으로 인식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하지만 경험해보지 않은 그 상황 속으로 잠시 몰입하여 그 입장이 되어 보는 '체인지가든' 4종 체험!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들여다볼까요?

### '체인지가든' 4종 체험!

청계광장 앞에 도착하였을 때 그날은 바람이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로부터 불어오고 햇빛이 들지 않는 날이었지요. 그 장소와 그 날씨는 드라마 속의 그 장면(라임과 주원의 영혼이 바뀌는)과 느낌이 비슷해서 정말이지 체인지가든을 체험을 하는 모습들이 더욱 실감나게(재미나게) 보였습니다.

#### 1. 성차별 택시

체인지가든 입구에서 주는 사탕을 먹으면 성차별 상황 속 여성으로 휘리릭~ 뿡!! 먼저 체험하게 되는 것은 밤에 택시를 타는 여성이 되는 상황. 리얼한 멘트를 날려주는 택시기사. "이 늦은 시간에 여자가 택시를 타고 위험한데 말이야, 여자가 조심해야지, 옷차림이 너무 야한 거 아니야?"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바로 대응을 못 하고 침묵. 택시기



march, march...  
라치!  
네가 여성인듯...



역분이 들어있잖! '마치 여성인 듯'  
<체인지 가든>을 통해 여성들이 겪는 차별,  
당혹스러움을 이해하도록 경험해봅니다!  
'여성 체험을 통해 각 여성들의 입장을 되새기겠습니다.'

**체인지 가든 4주 체험안단 TIP**

각 코스에서 바로 그 '여성'이 되어보세요!  
한 마디 정도 대응을 시도해 보아도 좋아요!  
실제 상황이 아니므로!!!  
상대에게 폭언, 폭력은 쓰지 말아주세요~

**1코스 공공장소에서** 의자에 앉으면 코스 시작!  
늦은 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되어봅니다.

**2코스 회사에서**  
임신을 했거나 출산휴가를 써야 하는 직장 여성이 되어봅니다!  
임신/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했더니 상사가 호소를 했어요

**3코스 집에서**  
직장으로 멀리 가서 가사노동도 하는 여성이 되어봅니다!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쉬지도 못하고 쌓인 집안일이 잔뜩

**4코스 식당에서** 앞치마를 쓰면 시작!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여성 노동자가 되어봅니다.  
점심도 못 먹고 일하는 중, 손님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술시중까지 하랍니다

사는 마치 그 여성을 걱정이라도 하는 듯, 여성이 밤길을 조심해야 한다는 대사를 팡팡 날려주는군요. 가만가만 듣다가 자신이 왜 그 시간에 택시를 타는지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 여성분들 멋지셨답니다! 체험이 끝나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이런 말을 하셨던 분이 기억에 남았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예상하고 택시를 탔기 때문에 이런저런 대응을 했지만, 실제 상황이었다면 기분이 상하고 뭐라 뭐라 할 말은 가득해도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 2. 출산휴가

택시에서 내리게 되면 다음 코스는 출산휴가를 신청한 직장여성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장상사는 부드러운 말투로 출산휴가 신청을 한 여성을 호출하여 일을 그만두기를 권합니다. 마치 여성노동자를 위한 것처럼 말을 하네요. 출산휴가를 다녀와서 혹은 임신 중에 일할 수 있고 일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한 말을 해도, 상사는 이런저런 부당한 이유를 나열하며 결국 제주도로 발령을 내는군요(헐;). 회원 중 비혼 여성인 분에게 살짝쿵 다가가서 ‘임신한 직장여성’의 경험이 있는데 당시 어땠는지 물어보았어요. 자기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직장 내 차별상황을 사전에 면밀히 고

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자신에게 그 일이 닥치게 되자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야 할지 난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회원님은 앞으로 자신의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좀 더 섬세하게 다양한 여성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어요!

## 3. 전업주부 가사노동자

임신과 출산여성을 경험하고 나니 시부모님, 남편, 아이들이 기다리는 가정을 체험하는 코스로 이동하게 되네요. 야근을 며칠째 하고 좀 쉬고 싶은데, 시부모님은 집안 꼴이 이게 뭐냐 하시고, 남편은 집안일은 하지 않고 아내가 오기만을 마냥 기다렸다가 이것저것 말이 많군요. 아이는 학교에 엄마가 와줘야 한다며 울기 시작합니다. 참여했던 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코스 중 하나였지요. 실제 상황처럼 몰입하여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였는데요. 지나가던 분들이 실제 싸움이 일어난 줄 알고 쳐다보는 경우가 많았는지요?

## 4. 식당 여성 노동자

네 번째는 식당여성노동자가 되어보는 코스였어요. 대부분 참여자들에게 식당에서 일하는 경험은 아마도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벨은 자꾸 울리고, 고객은 친절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한 번에 요구하지도 않고, 여러 번에 걸쳐 이것저것 요구하는 '진상 손님' "손님이 왕이다, 고객에게 친절하게 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잡혀 있어서 그럴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지는 참여자들의 모습이 식당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했어요. 체인지가든 4층을 모두 체험하면, 자신이 체험하며 느낀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소감을 버튼으로 제작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는 참여한 여러 분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이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잠깐이었지만 여성의 성차별 상황을 체험하면서 기분이 나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 무경계 라인댄스!

자, 이번 순서는! '체인지 가든'의 다양한 상황극 체험을 통해 서로의 경계를 넘어 함께 이해하고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면, 이번 순서는 음악에 맞춰 몸의 움직임을 통해 '무경계'를 경험할 수 있었던 라인댄스! 리듬감이 있는 음



악이 들리자, 하나, 둘, 셋. 모이는 사람들(인천지부, 군포지부 선생님들도 참여해주셨어요!). 시작은 둘이서 시작했지만,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 보니 어느새 청계광장 저 유명한 '소라탑' 앞을 가득 채운 풍경은 추위를 잊고 서로의 경계를 넘어 하나가 되어 어울리는 여성의 날 축제 같았어요. 동작을 정확히 몰라서 못하겠다면 분들도 어느덧 흥겨운 음악에 함께 몸을 움직이며 피켓을 들고 함께 해주셨어요!



##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

이렇듯 성별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경계를 넘어 여성들이 광장 가득히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3월 6일 우연히 들린 청계광장-민우회 체인지 가든에서의 경험이 다소 낯설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불편함을 느껴서 기분이 좀 이상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날의 경험으로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주위의 다양한 성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대하는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한 변화들이, 속도는 느릴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업**

모후아 ●

원손잡이라 밥상에서 서러움이 많았던 아이.  
그 때의 그 감성이 지금의 모후이를 만들었음지도 모른다.

# 견적내기프로젝트 성형 OTL\* [성형하고 싶...]

정슬아(여경鏡)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 올해 **민우회 여성건강팀**은 [견적내기프로젝트 성형OTL]이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실천단을 모집해 직접 성형외과를 찾아 견적을 내보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단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 민우블로그에 글을 포스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여성주의자, 대학생 등과 나는 '몸 관리 그리고 성형'에 대한 집담회 [성형하고 싶...]의 글이 실려 있다. 본 글은 사업초기에 성형외과에 견적을 내보러 갔었던 느낌들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성형견적을 내보러 가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원하는 수술을 클릭하면 평균시장가로 견적을 내주는 사이트를 발견했다. 클릭 클릭 천이백만 원의 견적이 나왔다. 헉. 그리곤 가상성형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아 내 얼굴 여기저기를 손대보았다.

눈에 쌍꺼풀을 그려 넣고 턱도 한번, 코도 한번. 순식간에 변하는 얼굴에 '앗!'을 외쳤다. 이 세상 참으로 별세상일세. 다시, 견적을 내려 어디로 갈지 고민했다. 강남, 압구정 등 성형의 메카로 불리는 곳으로 갈까? 아니면 마음 편하게(?) 동네에 유명한 병원엘 갈까?

## 거울, 작아지는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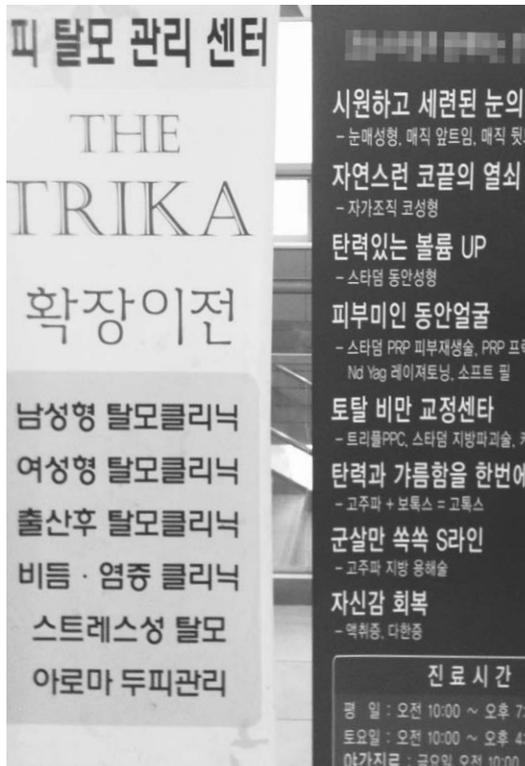
고민 끝에 집과 가까운 성형외과 예약을 하고, 당일이 되어 병원을 찾았다. 차트에 내가 원하는 수술부위(눈, 코)를 체크하고 대기실에 있는 부위별 성형법이 담긴 파일들을 뒤적였다. 이내 또렷한 얼굴의 상담실장 언니와(여기서 왜 언니란 단어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다) 분리되어 있는 상담실로 향했다. 괜한 겁먹음이 있었던 건지 뭔지. 나 혼자 계속 쳐다보



## ● 민우ing

고 있는 거울. 그 거울 속에 갇혀있는 나. 작아지는 내가 보였다. 아, 거울.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혹은 나의 몸은 왜 팽창하는가.

그녀는 내 눈에 나도 모르던 몽고주름이 있다고 했다. 사람을 즐려보이게 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이 녀석은 쌍꺼풀 수술을 통해 없애버릴 수 있단다. 다행히도(?) 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미간사이의 적절한 넓이를 가졌고, 앞트임을 할 수 있다. 그래, 그나마 미간의 넓이는 가졌구나. 쌍꺼풀을 그린 나의 눈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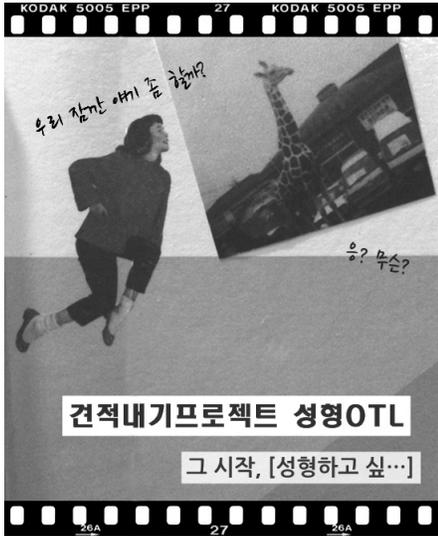


그 공간, 그 시간, 거울 앞에 있는 나는 스스로 눈 말고도 나의 못난 얼굴을 고백했다. 자기고백의 시간이다.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점점 못나 보이는 나의 얼굴을 만났다. 또 렷한 인상을 위해 코를 세우는 것에 대해 물어봤다. 수술이 아닌 필러라는 주사로 빠르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단다. 오호라. 몇 분이면 나의 콧대가 살아난다고? 원장은 1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주사를 맞는 것은 비용이나 번거로움이 있으니 수술을 하는 것은 어떠냐고 했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나의 코. 이 코는 유행하는 코가 아니다. 요즘은 버선코처럼 코끝이 살짝 올라간 녀석이 유행이란다. 나의 연골을 떼어 실리콘으로 콧대 받침을 만들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게 받은 건적은 500만 원 정도. 건적을 내려 갈 때 교통카드만 들고 가라던 지인들의 말처럼, 거울에 비친 작아지는 나를 만나면서도 달라질 수 있는 내 얼굴에 대한 기대감에, 짧은 수술시간과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들썩들썩 했다.

## 성형, 계속되는 물음표

수많은 성형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고가는 질문들 속에 존재하는 불안과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걸까? 외모가 자원이고 외모가 자본인 이 사회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형이 맞는 걸까? 실제 성형수술 후에 만족한 삶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고, 개인을 설득해 성형을 하는 것 말고 다른 자기개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은 이 현실이 버티고 있는데 민우회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사회가 원하는 얼굴, 미인상이 90년대 다르고 2000년대 다르고 2010년대에 다른 이런 현실. 그렇게 유행에 얼굴이 옷과 같이 소비되며, 바뀌고 보편적인 얼굴을 탄생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획일화된 미와 그 안에서의 세분화된(업종별로 다른) 미묘한 미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덤해진 내가 있다는 것. 한 번 시작한 수술은 그때에 맞게 바꾸는 것이 권장되거나 개인의 욕망인냥 말해지는 문화는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누구나 미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생명과 관련된 것을 아닌 것인냥 만들어 버리는 것은 문제이고, 검증되지 않은 온갖 신기술과 기계에 열광토록 만드는 성형의료산업도 문제다. '부작용 없음, 빠른 시술' 이란 말과 함께 백화점처럼 성형, 다이어트, 피부 등 토털로 몸 관리를 해주는 곳으로 성형외과가 존재하는 것 또한 그렇다. 성형이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얘기되

는 것. 의사는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말해주지도 않고(코에 맞는 필러는 코끝에 찌꺼기를 남기고, 연골이 주저앉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직접 수술대에 올라야 의사얼굴을 처음 보는 현실은(그전에는 상담실장만이 나를 반기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 [성형하고 싶...] 말줄임표에 숨겨진 이야기

흔하게 말줄임표를 사용할 때가 서술어 뒤에 마침표를 찍기는 어려운, 그렇게 정리하기에는 못 다한 이야기가 잔뜩 일 때를 의미한다. 선택과 강요 사이에 존재하는 성형에 대한 솔직한 욕망을 풀어보기 위해 집담회의 이름을 '성형하고 싶...'이라 정하게 되었다. 민우회는 성형OTL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래서 어떠한 '답'을 줄지에 대한 기대에 갇히지 않고, 성형에 대한 고민의 지점을 솔직히 말해보려고 한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다고 믿게 되었을 때 성형을 고민하게 되고, 외모를 관리하는 것을 365일중에 350일쯤 고민하게 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집담회를 진행하고, 견적을 직접 내어 보는 실천단을 모집하고, 성형 위험성 고지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간과정에 무엇이 포함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

#### 여경 ●

벗어날 수 없는 욕망. 끝없는 욕망.  
 몸 관리에 대한 욕망. 욕망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른다.  
 세포분열 하듯 '성형하나 붙잡고 이랬다저랬다' 답을 찾지 못하는  
 내 마음이 답답하다

## 정부여 제발, 돈이 아니라 의미를 받아라

이임혜경(오이)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재밌는 일이 아니라면 적어도 재미있게는 써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일은 거의 매일 터지고 대응해야 할 사안이 반복되다 보니 그 일이 그 일 같고, 이 얘기가 저 얘기 같다. 거기다 여성 사안이라는 게 그렇더라. 뭐 하나 단순한 게 없다. 설명이 길고 내용이 복잡하다. 욕심을 버리고, 귀 기울이지 않을 것 같은 무기력감을 오늘도 극복해 보리라.

### ‘수정을 허용하지 않는 계획은 나쁜 계획이다’

때는 2010년 어느 날, 상담소는 공문 하나를 받았다. 성폭력상담소가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신규 대상이니 일모아 시스템에 시설종사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것이다. 황당했다. 심각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고 있는바 아니나 1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상담소가 ‘신규 일자리 사업’이라니 말이다. 거기다가 나의 개인정보는 왜 입력하는 것인가? 신규 고용자 통계에 내가 잡히는 것? 상담소 활동가들이 다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과로 포장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따져보기로 했다. 전국 수 백 개의 성폭력, 가정폭



력, 성매매 등의 상담소와 쉼터가 ‘일자리 사업’ 장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지. 여성가족부, 노동부로, 결국 총괄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고용·사회안전망 태스크포스팀 담당자에게까지 전화하였다. 어느 한 곳도 뽕족한 대답은 없었고 선정과정의 책임을 돌고 돌았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미와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했지만, 이 역시 명확한 것이 없었다. 아, 정말 허술하다. 하지만, 상담소의 선정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 수정을 요구했지만, 결론은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다’였다. 부처의 답변을 정리하자면, ‘일자리 사업’을 위해 지난

해 총리실은 모든 부처에게 신규 일자리 사업을 한 가지 이상 내도록 요구했다. 새로운 사업 영역 개발이 안 된 부처도 ‘무조건’ 사업 보고를 한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에 이미 보고가 됐고, 실적은 올려야 하고(안 하는 부처는 완전 티난다), 올라간 실적을 빼 달라는 우리의 요구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각 부처의 곤혹스러움은 이해가 된다. MB는 아주 성과를 좋아하는 분이시니 말이다. 하지만, 어이는 없다. ‘일자리 창출’을 해서 국민을 복(?) 되게 하려는 마음보다 눈에 보이는 실적(말 그대로 전시행정)에 연연해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난감했다. 구색 맞추기용 사업 보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수정을 허용하지 않는 계획은 나쁜 계획이다’라는 말이 있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의 예에서 이미 다 아는 바이기는 하지만, MB정부는 나쁜 계획만을 세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성과, 실적주의에 대한 아집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된 또 짧은 얘기를 시작해 보겠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인센티브 반납 사건이다.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인센티브 반납 사건

때는 또 2010년, 여성폭력 관련 시설 363개를 대상으로 시설평가가 있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04년부터 3년마다 평가를 해 왔고, 작년은 그 세 번째였다. 그리고 여가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30% 내에 해당하는 우수(?)시설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다. 인센티브는 아시다시피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돈)’을 의미한다. 여가부도 인센티브 지급 목적을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이라 밝혔다. 그러나 인센티브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여성폭력 관련 단체들은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질적 평가이기 보다는 서류 중심의 평가방식이 변별력

이나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단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개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시설환경 및 안전도,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서비스 및 인권보호, 지역사회연계, 종사자 근무환경 등의 평가 영역은 정부가 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인센티브 내 건 평가방식은 여성폭력 관련 단체들의 길들이기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 무엇보다 주장의 핵심은 4억이 넘게 책정된 인센티브 예산으로 단체를 줄 세우기보다는 피해자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쓰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고 과제라는 것이다. 여가부는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의 욕구와 요구에 부합하는 실제적인 예산 편성에 주력해야 한다.

## ‘인센티브 예산을 피해자 지원예산으로!’

이런 요구들을 담아 올해 초, 1월 6일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인센티브 예산을 피해자 지원예산으로!’라는 주장을 하며 인센티브 반납 기자회견을 하였고, 3월 9일에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여가부의 입장은 간단했다. ‘인센티브는 책정된 것이니 어쩔 수 없다’. 열악한 재정에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담소나 쉼터들이 인센티브 반납을 결정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반납을 한 것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을 마련하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음에도 여가부는 ‘해당 기관의 자율적 판단사항’이라는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오기도 했다. 한 회의 자리에서 모 국장은 이 단체들의 ‘정치적 음모’라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어이가 없다. 정부는 인센티브 반납의 의미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마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올바른 피해자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1.1.6)

이 있다고 한다. 심지어 작년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4대강 개발 때문에 지원 예산이 동결될 것이라는 말을 내뱉기도 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은 잘 준다. 왜? 피해자 지원을 놓고 서로 실적 경쟁을 시키는 인센티브 제도가 더 좋은 피해자 지원이나 여성폭력근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쉼터의 특성상 거의 맨손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생계비는 주·부식비와 취사연료비를 합쳐 1인당 하루 4,280원에 불과하다. 물가수준을 고려할 때 이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퇴소자자립지원의 확대, 입소자 직업 훈련비의 이관, 치료비 삭감의 문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시설의 열악한 환경, 10년째 큰 변동 없는 운영비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다 합쳐 봐야 큰 돈도 아니다. 정부가 원하는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방식에 지나지 않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여성폭력근절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평가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인센티브 예산으로 열악하고 긴급한 부분을 먼저 지원하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주장인가.

성과주의나 경쟁 논리는 이제 그만 하자.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돈 몇 푼 쥐어주며 경쟁하고 분열하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 후원자를 조직할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상담소나 쉼터에게 박탈감만 안겨주는 제도가 도움이 되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인센티브 반납의 의미에 좀 더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 정부여, 제발. **함**

오이 ●

자아의 경계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 ○ 민우스케치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무부와 의 면담 진행 및 법무부 규탄기자회견



법무부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사회경제적 부담 때문에 무기한 법제정을 유보하고 조사, 연구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부를 규탄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담보받기 위한 기자회견을 법무부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후 법무부 인권정책과와의 면담에서 법무부는 사회적 합의과정에 대한 부담, 반대세력에 대한 엄청난 의식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차별을 담을 수 있는 인권기본법입니다. 앞으로도 꿋꿋하고 자신 있게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1월 27일, 정부과천청사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명절 캠페인 '가는 곳은 달라도 차별금지법으로 통해요!'



명절이 모든 사람에게 달갑지 않은 것이요, 직업유무, 가족상태, 학력, 성별 등 온갖 차별이 꽃피는 때가 바로 명절입니다. 모두를 위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은 평등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월 2회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개최하며, 캠페인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청원서명, 페이스선언을 할 수 있고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올바른 길라잡이 소책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누구내 함께해요!

2월 1일, 서울역

### ● 국가인권위 성차별 조사관 부당해고 규탄 여성계 기자회견



인권위는 지난 28일 차별조사관 강인영 조사관을 해고하였습니다. 근 10년간 인권위에서 차별조사를 담당해온 강조사관의 해고는 불합리한 해고, 즉 부당해고이며, 이로 인한 성차별조사업무의 공백사태는 예측하기 쉬운 일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면담요청을 거절하여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에 항의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갈수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권위. 빼앗긴 인권위에도 봄은 올까요?

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 ● [생생여성노동행동] 돌봄 노동자, 그림자를 벗자!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여러단위들이 모여서 돌봄노동자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내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식당노동자, 간병노동자, 가사노동자, 청소노동자, 보육노동자의 현재적 상황을 시민들과 함께 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각 단위에서 직접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캠페인 이후 돌봄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는 '돌봄노동자, 그림자를 벗자!' 퍼포먼스를 하였고, 바로 이어 '3.8 세계여성の日 기념, 여성노동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돌봄노동자들이 그림자를 벗고 지금보다 더 강해지는 날까지~ 우리 함께해요!

3월 2일, 광화문 원표공원

### ● 우리는 법(생활임금)과 장미(휴게공간)를 원한다!



103번째 맞는 3.8 세계 여성의 날,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청소/경비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청소/경비노동자들은 간접고용 관계 속 해고 불안, 최저임금 시급 4320원, 변변한 휴게공간도 없는 현실에 맞서 생활임금과 제대로 된 휴게공간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날 여성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800여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진행중인 부분파업과 교섭, 민우회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3월 8일, 연세대학교

### ● 고 장자연 사건 특검 도입을 요구 피켓시위



고 장자연씨의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장자연씨의 지인이 장자연씨와 주고 받았다는 편지 속에 피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경찰은 편지가 자필인 경우 수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조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결국 수사가 종결되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많은 의혹만 남긴 채사건이 종결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3월 17일, 광화문 사거리

## 감옥으로 부터의 편지

하승수 ●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최근에 감옥에 계신 어떤 분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는 분도 아니고, 어떤 죄목으로 감옥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분으로부터의 편지였습니다. 편지에 적힌 자기소개는 단지 '상당히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지금까지만 해도 꽤 오랜 기간 감옥에 있었다.' 라는 사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보고 변론을 맡아 달라거나 접견을 와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 변호사 휴업 중이라 그런 요청을 받아들일 처지도 못됩니다.^^ 그분은 전혀 다른 종류의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편지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몸과 마음을 감아먹는 음울한 일상 속에서 그래도 무언가 희망을 찾아보고자 하는 일념으로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 이곳에 있는, 아니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자들은 법령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중 하나일 텐데, 자신에게 필요한 공개된 자료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 천우에 관한 귀책 하나, 공금증에 대한 자료 하나, 제때 자신의 손으로 구해 볼 수 없고, 때로는 이런 자료들을 구하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들

..... 솔직히 이곳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대부분 '비공개'나 '부분공개'로 결정이 됩니다. 하면 무지하고 돈도 없는 수용자들은 대부분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인 줄 알고 자신들의 권리를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게 이곳의 실정입니다. .... 전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그 희망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에도 설불리 절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분이 요청한 것은 교도소의 정보공개 문제를 다룬 사건의 판결문과 정보공개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사실 바깥에 있는 사람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인데, 그걸 구하기가 어려워져 제게 부탁해 온 것입니다. 아,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정보공개청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군요. **정보공개청구**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든, 장관이든, 교도소든 모두 정보공개할 의무가 있고, 지금 이 글을 읽시는 분들도 그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정보공개청구를 하느냐?”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감옥과 같은 폐쇄적인 공간일수록 인권침해의 소지도 많고 여러 부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매일 피부로 겪는 사람들이 재소자인 만큼, 교도소 행정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절박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교도소의 각종 지침, 자신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교도소의 운영상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아는 것은 당당한 한 명의 인간으로 생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편지를 보낸 분도 그런 문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교도소 당국은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구해보려고 제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편지를 읽는데, 컴퓨터로 써서 출력한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편지지 4장에 볼펜으로 푹푹 눌러 쓴 편지입니다. 읽으면서

코끝이 좀 시큰했습니다. 사실 그런 편지를 받아 본 지는 참 오래되었습니다.

편지를 받고서 갈등을 좀 했습니다. 답장해야 하나? 책을 보내야 하나? 전혀 모르는 사람의 편지에 꼭 반응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큰 봉투를 하나 찾아서, 제가 쓴 정보공개에 관한 책 한 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A4 지에 간단하게 답장을 써서 같이 넣었습니다. 봉투에 넣은 책은 저와 다른 분들이 같이 쓴 『정보사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재미로 읽을 책은 못되고, 공공기관에 숨어 있는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필요한 책입니다.

책과 답장을 넣은 봉투를 우체국에 가서 부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절박한 편지를 읽고 아무 답을 안 했다면, 두고두고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후에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봉투를 열어보니, 또 볼펜으로 눌러 쓴 편지가 들어 있고, 우표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저희들에게 많은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 감동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우표를 보니, 500원짜리 우표가 50장이나 됩니다. 책을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소중한 데 쓰십시오.’ 라면서 우표를 보내셨습니다. 편지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소수자나 약자의 권리에 대해 어떤 시선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편지를 보낸 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인권문제는 누구의 시선으로 보는가에 따라 많이 다르게 보입니다.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의 인권,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의 인권... 이런 문제들은 한 번쯤이라도 당사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하승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관심사는 많아서 정보공개, 지방자치, 풀뿌리운동, 아이들이행복한세상만들기, 인권, 정부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등등이구요. 올해부터 한국여성민우회이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 구제역, 무엇이 문제인가?

박용신 ● 환경정의 사무처장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총 350만 마리가 넘는 소·돼지가 살처분 되었다. 실로 엄청난 재앙이다.

그런데 구제역으로 인한 여파가 살처분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그로 인해 2차 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 도대체 구제역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될까?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본다.

### 구제역이란 무엇일까?

구제역[口蹄疫, foot-and-mouth disease]은 소·돼지나 염소 같은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지는 동물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그 증상은 가축의 입과 발굽 주위에 물집 같은 것이 생겨서 사료를 잘 먹지 않고 거품 섞인 침을 흘린다. 병에 걸린 소는 잘 일어서지도 못하고, 통증을 수반하는 급성내구염과 제관, 지관에 물집이 생기면서 앓다가 죽기도 한다. 어른 소는 치사율이 5% 내외이고, 어린 소의 경우는 치사율이 50%에 이르기기도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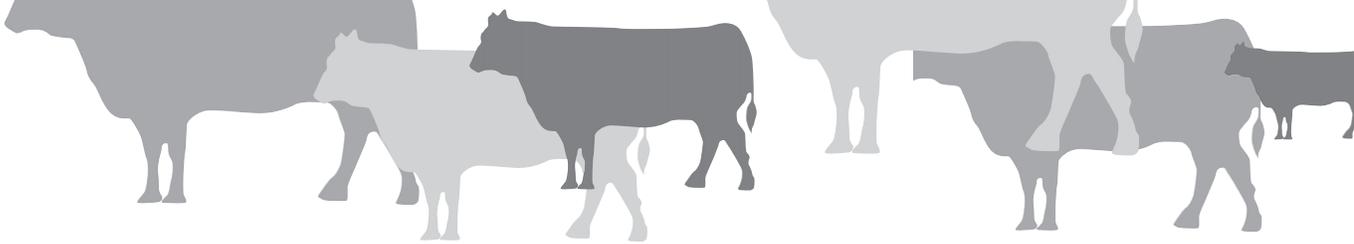
다. 특별한 치료약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린 소의 경우 대부분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병이긴 한데, 병이 낫는다고 해도 사료를 잘 먹지 못하고 살이 찌지 않는 등 사실상 가축으로서의 경제적인 가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살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다.

### 구제역, 왜 위험한가?

옛날에는 구제역을 '아구창'이라 했는데, 동네에서 아구창에 걸린 소가 생기면 그 소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벌였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도만 넘어도 다 죽어 버리기 때문에 조리해서 먹으면 아무런 위험이 없고 사람에게 옮기는 병도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대단치 않은 질병

이라 할 수도 있는데, 구제역이 가축계의 에이즈라고 불릴 만큼 위험한 질병으로 인식되는 것은 그 치명적인 전염성 때문이다. 구제역은 그 바이러스가 공중에 떠다니다가 바람에 의해 옮겨져서 전염되기도 하고, 쥐, 두더지, 오소리 같은 야생동물에 의해서도 옮겨진다. 사람의 몸이나 차량 등에 붙어서 비교적 먼 거리에도 한번에 전염 시킬 수도 있





고, 물론 국경을 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 농장 안에서 한 마리가 전염되면 반경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까지는 하루아침에 퍼지게 되고, 돼지 한 마리가 구제역에 걸리면 그 돼지가 숙주가 되어 1천만 마리의 가축을 전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생긴다니 그 전염성은 가히 핵폭탄 수준이다.

### 구제역, 초기에 잡아야 했다.

구제역은 그 엄청난 전염성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최초 발생지역의 가축들을 살처분 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의 정부의 대응은 완벽한 실패였다. 구제역이 발생한 초기에 안동지역을 완전히 통제해야 했음에도 안동지역에 가족과 친지를 둔 일반시민들이 별다른 통제 없이 안동지역을 방문했고, 사료를 운반하는 차량도 안동에 들렀다가 본사로, 다시 본사에서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구제역을 진단하는 수의사가 부족하여 몇 명의 수의사가 안동지역에서 경기도로 또다시 충청도 등으로 이동하면서 진단하게 하여 이들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특히나 구제역 발생 초기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구제역 발생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군대 동원을 부탁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장병의 부모

들이 싫어한다는 핑계로 군대동원을 거부했다는 풍문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제2의 국방이라 할 수 있는 방역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조차 없는 행위이다.

### 전염병이 걱정되는 이유는?

예로부터 전쟁이 발생한 후에는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돌았다.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는 항상 잡다한 세균들이 존재하는데 생존해서 면역력이 강할 때는 이것을 이길 수 있지만 죽게 되면 이러한 세균들이 급속하게 번식하게 되고 이것이 또 살아 있는 사람에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된 소·돼지가 350만 마리를 넘어서고, 조류인플루엔자로 살처분된 오리·닭이 600만 마리가 넘었기 때문에 총 1,000만 마리에 가까운 사체가 불과 석 달 사이에 전국의 땅속에 묻혔으니 웬만한 전쟁 이후의 후폭풍이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에서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봐야 알 수 있다.

### 2차 오염 문제가 더 심각

통상 가축을 살처분할 때는 5미터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침출수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조치를 한 후 거기에 비닐을 깔고 살처분한 가축을 매몰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구



제역 사태에서 심각한 것은 돼지는 살처분을 해서 매몰을 한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채로 매몰하는 생매장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더더욱 심각하다. 구덩이에 떨어진 돼지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그 과정에서 침출수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깔아 놓았던 비닐들이 힘없이 찢겨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침출수가 위로 흘러나오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다. 그것은 육안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은 문제가 심각하다. 침출수가 매몰지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지하로 스며든다는 것인데, 그것이 지하 수맥에 닿게 되면 그 수맥에 연결된 지하수는 전체가 오염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전국 농촌지역에 수만 개에 이르는 간이정수장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간단한 염소 소독만을 통해서 먹는 물로 공급된다. 수많은 바이러스가 염소소독으로는 죽지 않으니 이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농촌지역은 2차 오염에 의한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 친환경 축산만이 살길

가축들이 구제역에 걸리는 이유는 가축의 면역력에 관한 문제이다. 사람도 동일한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강한 가축은 구제역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그런데 우리의 축산 시스템은 가축들의 면역력을 현저하게 낮춘다. 소는 농장 면적 1km<sup>2</sup>당 31마리가 사육되는데 이는 호주의 3.51마리에 비해 아홉 배나 많고, 미국의 9.54마리나 일본의 11.67마리에 비해서도 3배나 많은 수치이다. 돼지는 훨씬 심각한데 농장 1km<sup>2</sup> 96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에 반해 호주는 0.26마리 미국은 6.65마리 일본은 26.53마리로 되어 있다.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 소보다 돼지의 살처분 숫자가 20배가량 많은 이유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돼지 한 마리당 사육 공간이 0.43평에 불과하니 이 돼지가 면역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는 공장형 축산에서 더욱 심각한데, 보통 마트 같은 데서 ○○ 포크라고 되어 있는 상표 있는 돼지고기가 오히려 그냥 이름 없는 농가에서 공급하는 돼지고기보다 훨씬 더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덧붙여서 닭은 더욱 심각한데 산란계 한 마리당 주어지는 공간은 0.042m<sup>2</sup>인데 이는 A4용지 한 장에도 못 미치는 면적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문제나 우리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친환경 축산 이외에는 그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 **엽**

박용신 ●

별명은 만두예요, 속이 다양하게 꽉 찬 만두처럼, 다양한 생각들을 담고 살아요. 민주화와 이웃(나루건물 2층)으로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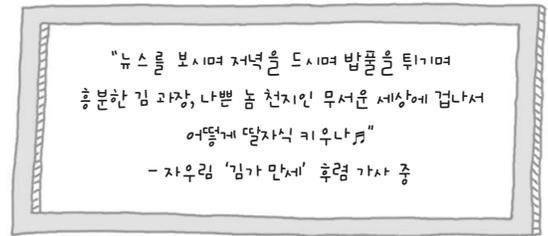
# 여성의 편안하고(安) 온전할(全) 권리를 위하여

최김하나(하나)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최근 언론을 통해 일본 대지진 참사를 목격하면서 재해가 한 사람의 인간관계와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위력에 어찌할 바 모른 채 슬프고 또 두려웠다. 어린 시절, 과도한 명예욕에 불탔던 나는 철없는 마음에 “난세를 비켜 태어나는 바람에 영웅이 될 기회를 잃었다.”라는 사실을 꽤나 아쉬워했다.(-\_-;) 그러나 생각해보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자신의 삶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음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설령 모험과 긴장을 즐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위험 요소들을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나 그것들이 삶의 자극제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나 역시 안정된 일상의 반복이 가져다주는 편안함을 때때로 누리고 있으며, 그 누구도 궁극적으로는 위협과 위험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살길 원하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 안정적인 조건에서 계획대로 삶을 영위하길 바라는 것은 인간 본연의 욕구이자 권리이다. 그런데 나는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단지 ‘여자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원치 않는 ‘추가 위험’을 덤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그것은 바로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위험이다.



요새 정부나 지자체 정책의 경향을 살펴보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지역 만들기’가 유행처럼 언급된다. 얼핏 보면 여성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여성 단체야말로 두 손 들어 환영할 일 같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오히려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말려야 할 판국이다.

여성 인권 정책 수립에 가장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만 하더라도 여성 폭력 근절과 관련한 실질적인 예산은 오히려 일부를 삭감하고! 그나마 역점을 둔 것이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이다. 지역 차원에서 연대를 통한 노력은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분기별 회의에 대한 규정은 실적 보고용으로 형식에 그칠 것이 우려되고 그나마도 아동안전지도나 CCTV 증설 같은 내용이 이미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하달되었으니 지역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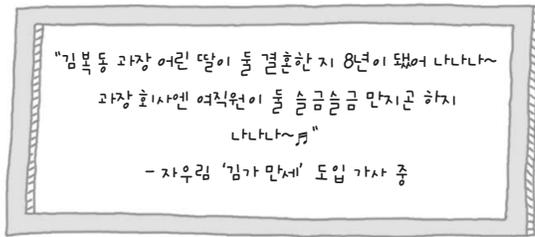
게다가 여성 안전을 아동 안전 문제에 끼워 넣기 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해당 부처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아동에 대한 폭력이 각각 발생하는 원인에

주1 가해자 재범방지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의 사업이 2010년 대비 예산 삭감되었음 (2011 여성아동권익증진예산 - 여성가족부 참조)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배경 분석은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위 사업을 포함한 여성 안전에 관한 대다수 정책이 여성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에 대한 위험이 도처에 널렸으니 우리 사회와 정부가 나서서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일견 타당할지는 모르겠으나 안타깝게도 여성의 안전을 100% 믿고 의탁할 수 있을 만큼 자격이 충족된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폭력 가해자는 다름 아닌 피해 여성들의 '보호자'였으며, 성폭력 가해자의 80%가 피해자 지인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일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나 국회의원에 의한 잇따른 성희롱 사건, 검찰의 성 접대 파문, 성매매 포주와 경찰의 유착관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공권력에 의한 여성 폭력 피해 역시 만연하다. 이런 현실에서 또 다른 누군가(남성 권력 혹은 그 대리)를 통해 여성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따름이다.



여성에 대한 보호담론이 그 자체로 위협한 것은 여성을 인격적 주체로 상정하지 않고 수동적 존재로 바라봄으로써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여성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해 '여성에게만' 가해지는 폭력이 있음을 반증한다. 그리고 그 폭력의 밑바탕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 순종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 남성의 성적 쾌락을 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곧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한다. 또한,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는 여성, 자신의 안전을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힘을 키우는 여성, 자신에게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들이 '드세고, 까다롭고, 피해의식에 빠진 소위 여자답지 못한 여자'라며 비난하는 사회야말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강력한 뒷배가 되어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진심으로 여성이 안전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여성에 대한 '차별-폭력-보호담론-(다시)차별'로 무한 반복되는 순환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 여성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 채 주변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식은 일시적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 외에 다른 예방 효과가 검증된 바도 없으며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이란 말을 너나할 것 없이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사회 분위기인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그러한 상황이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도 아니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단기간 내의 획기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묘책이란 없다는 뼈아픈 사실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보아야 한다.

일상에서의 성차별을 당연하다고 여기진 않았는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쉽게 눈감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우리 사회가 여성을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서 존중할 때 여성에 대한 폭력의 위험이 사그라지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 내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하여 평등을 향한 오늘의 한 걸음이 절실한 때이다. **밖**

하나 ●  
허명을 경계하려는 노력\*

# 미션 3.0 : 사회에서 실종된 여성 찾기

최은순 ●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을까?

중고등학생 아들을 둔 부모를 만나면 으레 듣는 말이 있다.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성적 경쟁에서 밀려 걱정이라는 것이다. 대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남녀공학에서 여학생들의 성적 우세는 물론이고 그 숫자도 거의 남학생과 비슷하며 학생회 활동 등에서도 눈부신 활약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거로 곧잘 활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희한하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남학생들의 학부모를 질리게 하는 그 많은 잘난 여학생들은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 다들 어디로 흩어져 사라진단 말인가?

법조계만을 놓고 보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여성 재판관과 대법관은 현재 1명씩이다. 대한변협의 이사 이상의 신입집행부에는 현재 여성변호사가 1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변호사 중 여성의 비율이 약 15%에 육박하는데도

말이다. 올해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신입집행부는 자신의 러닝메이트로서 여성부협회장을 지명하여 같이 선거운동을 같이 해 온 여성부협회장 내정을 철회하고 집행부에 1인의 여성변호사도 임명하지 않아 한국여성변호사회로부터 항의방문을 받고는 유감의 표시와 함께 이를 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신입집행부 중 여성은 1명이다.

법관은 여성들이 법조직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다. 2011년 3월 9일자 법률신문에 의하면 올 3월 3일 지난해 사법연수원 39기 출신 89명 임명보다 적은 수인 81명을 법관으로 임명하였고, 올 4월에 전역예정인 군법무관 출신 37기 중 지난해 36기 출신 52명보다 10명이 늘어난 62명을 법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 신문에 의하면 “법관임관 심사는 점점 엄격해질 것”이며 “연수원 성적만 좋다고 다 판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법원 관계자의 말이 인용되어 있다. 또한 “올해 군법무관의 판사임관이 작년보다 많은 것은 막판에 대형 로펌으로 가기로 했던 법무관 7명이 갑자기 법원으로 몰려서”라며 “앞으로 군법무



관 출신 임관은 현행수준을 유지해 뽑을 것이나, 사법연수원 출신 임관은 점점 줄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고도 한다. 왜 이리 장황하게 법률신문을 인용했느냐고? 눈치 빠른 사람은 이미 간파했을 것이다. 연수원 수료자 중 법관임용 대상자는 성적 좋은 여성연수생들이 대부분이고 군법무관 출신 임용대상자는 연수원 수료 후 군 미필자여서 곧바로 임용되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군법무관으로 마친 남성이다. 결국은 여성들의 판사임용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물론, 향후 법관임용은 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 법조일원화라는 더 큰 틀 내에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이렇듯 성적 좋은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많이 진출하는 영역에서는 이러한 교묘한 미세조정을 통해 여성들이 밀려남을 엿볼 수 있다.

법원마저 이러하니 사회에서의 여성실종 현상은 말하여

무엇 하랴. “여성실종”이라고 해서 현재 노동시장의 밑바닥을 채우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과 돌봄 여성노동자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욕하지 마라. 어디까지나 학교에서 잘 나가던 술한 여학생들이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증상을 빚대어 보고 싶어 붙인 이름이니.

### 호주제 폐지 이후 : 신(新) 가부장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여성의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남녀균등상속제 도입과 부부재산분할제도의 도입 등의 가족법제 정비, 공직 등에의 여성할당제 도입, 성희롱의 법제화, 호주제 폐지, 자녀의 성에 대한 부성(父姓)원칙의 폐지 및 철용성 같기만 하던 중증과 YMCA와 같은 단체 내에서의 평등 문제들까지 다루내는 쾌거를 일궜다. 사회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여성운동의 성과로 우리 사회는 법

적으로는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이룬 것처럼 보이는 신기루 현상을 겪고 있다.

학교 안과 사회에서 극명히 대비되는 여성들의 지위, 가족 내에서의 뿌리 깊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 및 여성들을 딸과 돌봄 노동, 감정 노동의 담당자로만 보는 의식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듯 형식적, 법적 평등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온존하는 남녀차별의 현상은 남녀성별분업을 기반으로 하는 가부장제 사회구조, 의식과 관련이 깊다. 호주제 폐지 이전에는 민법에 “가(家)라는 개념을 두어 그 장(長)으로 호주제도를 두었다. 호주제는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주범으로 낙인찍혀 결국 폐지되었다. 동시에 자녀들의 성(姓)에 관해서도 유연하게 제도화되었다. 호주제 폐지 이후 우리사회는 남녀차별의 의식 측면에서 개선되었는가? 자녀들의 성(姓) 변경에 관한 제도운용 실태를 보면 가부장제 사회구조, 의식구조는 그 외항만을 살짝 바꾼 신판 가부장제임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현행 민법은 결혼 시에 자녀의 성을 정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후 자녀의 성이 문제 되는 경우는 주로 이혼 후 친모가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경우인데 친모가 재혼하지 않고 자녀의 성을 친모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친모가 재혼한 경우에 자녀의 성을 계부 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경향에 있다. 종전의 성 불변의 원칙이 부계혈통에 의존하고 있었음에 비해 현재는 자녀들의 성이 계부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된 남자들의 성(姓)질서로 재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의 성을 아예 친모의 성으

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 이후에 자녀들의 성이 친부나 계부와 다르다고 하여 이상하게 보지 않는 사회로 나가지 못하고 자녀의 성은 아버지나 남자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구조에 갇혀 있다.

가부장제이든 신 가부장제이든 이러한 사회구조와 의식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하는 기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사와 명절문화를 꼽을 수 있다. 이혼 상담이 명절 이후에 폭증한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 제사 의식과 종교의식이 그 사회를 통합시켜 내는 것의 힘에 대해서는 이미 ‘자살론’으로 유명한 에밀 뒤르켐이 지적한 바 있다. 에밀 뒤르켐은 그러한 힘을 긍정적으로 본 듯하나 우리 사회에서 제사와 명절은 남녀에게는 분란거리이자 가부장제를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 여성운동의 미션 3.0

명절, 제사, 가족의 성(姓) 문제는 여태껏 우리 여성운동에서 금기시되어온 주제인지 모르겠다. 이를 건드리는 순간 여성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작용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제는 이 문제에 관해서 다뤄야 하고 다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심도 있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그래야만, 학교 내에서만이 아닌 사회 내에서의 여성들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성들의 사회에서의 실존을 막아야만 미래세대의 재생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여성단체에 부여된 이 미션은 종래 여성문제를 폭로하는 단계와 법제화하는 단계를 뛰어넘는다는 의미에서 미션 3.0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㉞**

최은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불안

일상적 불안들..

사소하고 소소한 무엇인가가 잘 안 될 것 같은 불안,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 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불안,  
때로는 미리 걱정하는 불안

생각해보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물론 불안은 인간이 진화론적으로 발전시킨 자기 보존의 본능의 일부이다. 그렇기에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불안할 수 있다. 결국,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불안은 나 자신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건강하지 않다는 경고일 수 있다. 이러한 불안의 경고에 대하여 마냥 무시하거나 무조건 대항하려고 하는 것 역시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불안이 보내는 메시지는 단순한지도 모른다.

*“나와 나 사이의 관계를 건강하게 바로잡아라!”*

불안은 결국 살아 있는 내 몸 혹은 우리 사회가 내게 보내는 소중한 '생명의 신호'이다.

그리하여, 불안을 어떻게 봐야하는 것일까?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휘감고 있는 불안을 (개인적 불안), (사회적 불안) 그리고 <그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통해 다시, 불안하게 바라보기.

## 불안하면 좀 어때

김창연(곰) ●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나는 화장실에서 불일을 보고 난 뒤 휴지가 없을 것을 생각하면 불안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불안해”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을 때를 생각하면 불안해”

**당**신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 나의 지인들은 이렇게 답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따르면 불안(不安, anxiety)은 특정한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두려운 감정으로서, 자기에게 닥칠 위험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미래의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어 자기 안전이 깨어질 것이라는 두려운 감정을 뜻한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평안함이 깨질 것에 대한 괜한 걱정’이 “불안”이라는 얘기다.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걱정이 되니 마음이 무거워지는 기분.

**사**실상 사람들은 언제 어떤 순간에서든 불안을 느끼기 마련이다. 아무 불안감도 없는 무균실 속 인생이란 것이 가당키나 한가. 친구들과 여행 가서 술 한 잔 걸치고 고스톱을 치는 그 한가로운 때에도 불안이 엄습하는 순간은 있다. 용감하게 고를 외쳤는데 싸면 어찌지?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 나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원고 마감 시간을 넘긴 죄로 근무시간 중에 일을 미뤄두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데, 실장님한테 들기면 어떻게 하지? 둘째, 원고 분량이 A4 두 장인데(글자크기 10, 줄 간격 160%, ‘개인이 느끼는 불안’이라는 주제에 대한 조건으로는 잔인하다, 따라서 중간 중간 적절한 엔터로서 분량을 채워갈 생각이다), 다 못 채우면 어찌지? 아, 이걸 불안이 아니라 걱정인가.

**내**가 십대 청소년일 때에는 인신매매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컸다. 당시엔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할머니를 도와드렸다가 할머니가 고마움의 표시로 주시는 야쿠르트를 받아 마시는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봉고차가 신고 외딴 마을 성매매업소에 팔아버리는 일이 빈번하다고 했다. 봉고차가 세상에서 가장 무섭던 시절이다. 대학생 때에는 애인이 바람피울까봐 불안했다. 나는 별로 예쁘지 않은데, 주위엔 매력적인 여성들이 넘쳤다. 대학원 다닐 때에는 수업시간에 교수가 나한테 질문을 던질까봐 불안했다. 읽어오란 교재를 끝까지 다 읽고 수업에 들어간 적이 없다. 졸업을 앞두고서는 취업이 안 될까봐 불안했다. 나이는 많고 취업에 제약이 많은 전공을 해버린 후였다. 비정규직으로 취업이 되고 나서서는 계약만료 후 갈 곳이 없을까봐 불안했다. 요즘의 나는,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생을 마감할 확률은 낮으니, 나도 언젠가는 건강을 잃을 것이고 투병하다 죽을 것이다. 다만, 그날이 너무 빨리 올까봐 불안하다. 엄마를 슬픔에 빠뜨리고 싶지 않지만, 술을 좋아하고 복부비만이며, 심지어 가족력도 충분하다. TV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암 검진 특집을 본방 사수하였으며, 「생로병사의 비밀」과 같은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 암 보험도 하나 들어두었다.

**의지**할 곳 없는 노년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하다. 혼자 살고 있고 앞으로도 혼자 살 생각인지라 외로움, 돌봄의 부재, 고독사(孤獨死)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플 때 누가 병원에 데려가 줄 것인가? 집에서 혼자 죽은 뒤 일주일 후에 발견되면 어쩌나?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친구에게 나보다 먼저 죽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였으나 그 녀석, 결혼하면 그만이다. 정녕 남동생 눈 밖에 나지 않는 길뿐이란 말인가.

**이** 직장을 그만두면 취업할 곳이 없을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정말이지 이직하고 싶을 때, 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와도 사표를 쓰는 손끝이 떨릴까 걱정이다.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어찌하느냐 말이다. 나를 거두어 줄 사람도 없고 모아 놓은 재산도 없으니,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나**를 지킬 수 없을까봐 불안할 따름이다.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가면이 너무 많다. 출근하기 위해 몸을 구겨 넣은 지하철에서, 사람이 이리저리 뒤엎킨 환승역에서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다른 사람들을 밀치거나 누르거나 치고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

들도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 나 역시 미안해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적당히 참고 물러서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위하는 내가 있다. 상사에게 새 옷이 잘 어울리신다고 거짓을 고하는 나를 본다. 서울시 공무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하게 대하는 나는 스스로도 당혹스럽다. 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없다고 물러서거나, 할 수 없으면서도 할 수 있다고 고집한다. 직장 생활, 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혼란스럽다. 이렇게 나를 잃어버릴까봐, 나를 지킬 수 없을까봐 불안하다.

**그**래서 다른 삶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또 다른 불안감으로 귀결되곤 한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치지 않을 수 있을까. 결국,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지는 못하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기도 한데, 실천하지 않을 뿐일지도. 건강이 불안하면 운동하면 되지만, 가끔 불안을 느끼면서도 될 대로 되라지, 이불 속을 파고드는 나의 쿨한 게으름을 더 사랑하기도 하니. 체념의 미덕이랄까. 때로는 그저 불안했던 그 심정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술로 털어버리기도 하며, 같은 불안을 느끼는 비슷한 부류들과 서로의 유사한 심경을 확인하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니,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그래봤자 불안을 잠시 유예할 뿐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불안과 함께 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잖아? 본전도 못 찾을 과도한 로또와 보험, 투자, 무속신앙 등으로 귀결되지만 않으면 되겠지.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추' 고도 하지만, 난 불안이 사람을 진지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불안을 통해서 나는 용기를 가져보기도 하고 욕심을 버려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하고 마음을 비우거나, 소통하거나, 관계를 다지고 대안을 찾아 공부하기도 한다. 늘 성공하진 않지만, 불안과 슬램! 그것이 불안을 맞이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일지도. **ㅁ**

주1 Angst Essen Seele Auf, 영화 제목,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의 1974년 작품



곰 ●

「나는 가수다」에서 백지영과 윤도현과 정엽이 너무 일찍 탈락할까 불안하다. 이 불안도는 별점 두 개 반짜리.

##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라이너 파스빈더 감독의 영화 중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가 있다. 이 제목처럼 요즘 불안은 현대인들의 영혼을 잠식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식이 발달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미래에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낀다. 그런 까닭에 인간에게는 불안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러나 그런 점을 심분 고려하더라도 최근 사람들 사이에 확산하는 불안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불안이 특정한 몇 가지 문제들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느낌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생존을 위해 뚝뚝하게 하는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있다.

본래 생물학적으로 불안은 생존에 필요한 일종의 보호 장치이자 경보 장치다. 불안은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 대비하게 한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선전과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그 안에 품고 있다. 그것들은 무수한 권위를 동원해 현재의 문명과 체제가 정당하고 별 이상 없다고 안심시킨다. 그 탓에 사람들은 불안을 직감할지라도 머리로는 “설마 어떻게 되겠어? 괜찮겠지.”하고 자위하게 된다. 불안은 정체 모를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불안도 언뜻 보면 그렇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원인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너무 근본적이고 거대한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원인을 알기도 쉽지 않지만, 설사 그것을 안다 해도 내 의지와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 때문에 불안이 더욱 가중된다.

## 거대한 사회 규모와 불안

오늘날의 세계는 세계화된 세계이다. 현대인들은 모두 세계 단일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다. 한국인은 정치적으로는 국경이 유효한 까닭에 5천만 분의 1로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65억 분의 1로 살고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평범한 개인이 65억 분의 1만큼의 경제 권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것은 경제 권력이 없는 것과 같다. 세계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

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화는 지역과 국가가 독립성을 유지한 채로 서로 연결된 것이 아니다. 세계화는 지역과 국가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상호 의존성을 강화시킨다. 그러므로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지역, 국가, 개인의 불안정성이 증가한다. 세계화의 주체는 극소수의 초국적 자본과 그에 영합한 정치권력들이다. 평범한 개인들은 세계의 영향을 받기만 할 뿐,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에 따라 개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언제 어떻게 내 인생을 망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한다.

세계화된 세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전체의 문제이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경제 위기, 생태계 파괴, 이상 기후, 해로운 먹을거리, 전염병 창궐 등은 모두 세계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다. 세계적인 문제는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계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화는 그 자체로 개별 국가의 힘을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이 합의하여 통일적 행동을 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거대한 사회 규모 속에서 개인과 국가는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있다.

## 미디어의 발달과 불안

거대한 사회 규모는 인간의 감각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신문방송과 인터넷이 있지 않느냐고? 그렇다. 그것들이 세계를 개괄해준다. 그러나 그것들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여주지 않는다. 대부분의 미디어는 극소수의 거대 자본에 장악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주로 거대 자본의 이익에 기반한 메시지를 생산하고 유통한다.

정보의 세계적인 유통과 그에 의해 형성된 여론은 그 자체로 불안과 긴장을 유발한다.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미디어와 새로운 정보에 더욱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발 빠른 정보의 습득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개인은 거대 기업의 메시지를 자발적으로 내재화하게 된다. 그것은 수용자가 의도하는 세계의 '객관적' 구성과는 거리가 멀다.

대부분의 미디어는 광고수입에 의존한다. 실제로 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정보들 대부분이 직간접적인 광고이다. 그런데 이 광고가 불안을 제도화한다. 광고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남편, 아내, 자식의 욕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있다는 것, 맛 좋은 커피를 즐기고 있지 못하다는 것, 혹은 자신의 입 냄새, 평퍼짐한 엉덩이, 건조한 피부를 자각하게 한다. 그리고 그 때문에 성공적인 사회생활이 안 된다고 느끼게 한다. 광고는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강요하고 자신에 대한 불만을 조장한다. 마셜 맥루한은 『미디어의 이해』에서 “전기 테크놀로지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불안이었다.”고 말했다. 전자 매체는 인간의 정서를 차갑게 하고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며 불안감에 빠지게 한다. 전자 매체와 불안은 상호 촉진 관계에 있다. 불안한 사람들은 전자 매체를 통해 게임, 폭력물, 외설물에 탐닉함으로써 그것을 잊으려 한다. 그러나 게임, 폭력물, 외설물은 사람을 중독시킴으로써 또 다른 불안감을 그 위에 얹어줄 뿐이다.

## 금융자본주의와 불안

현대인들의 불안은 본래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점증되어 왔다. 자본주의는 신분 상승의 욕구와 신분 하락에 대한 불안을 조장한다. 물질중심의 세계는 정서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한 정서는 다시 물질적인 과시를 추구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분절되어가는 노동과정, 상존하는 고용불안, 빈부격차의 심화, 타인과 집단으로부터의 소외, 상실된 정신적 가치, 반자연적인 환경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 공동체의 파괴 역시 불안을 심화시킨다. 현재의 금융자본주의는 이런 불안을 극대화함으로써 발전·유지해 왔다. 산업자본주의의 자본 축적은 주로 상품의 생산과 판매라는 물리적 차원 속에서 진행되었으나, 금융자본주의 체제는 그러한 물리적 과정마저 자본 축적의 걸림돌로 여기고 그것을 거세해버렸다. 그리고 투기를 자본축적의 주된 수단으로 삼았다. 그 결과 자본축적의 속도는 무제한으로 빨라지게 되었다. 그것은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이 무제한으로 빠르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금융자본주의 체제는 투기를 향한 강한 사회적 압력을 갖는다. 그럴 때 노동의 목적은 도박에 참여할 판돈을 모으는 것이 되지만, 도박에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불안을 동반한다. 게임의 참여자는 조그만 외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늘이 되어, 시시때때로 등락하는 주가, 외환 가격, 부동산 가격, 원자재 가격을 점검하고, 그에 반응해야만 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도박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만으로는 부족하며 예측에 대한 예측을 병행해야 한다. 그것은 예민한 심리 상태를 만들고, 종종 신경증과 강박증으로 이어진다.

## 새로운 담론의 필요성

불안은 거대한 에너지를 형성한다. 그것은 아랍의 민주화 운동처럼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필연은 아니다. 불안이 극대화되면 사람들은 방향감각, 자아, 주위 세계에 대한 현실적 판단력을 상실한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무력감의 보상으로서 파시즘적 지도자를 갈망할 수도 있고, 전쟁으로 나아갈 수도 있으며, 인종 테러처럼 엉뚱해 보이지만 필연적인 희생양이 필요할 수도 있다. 현재 세계는 거대한 불안으로 들끓고 있다. 우리는 세계사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안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집단적 불안의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유도되느냐에 따라 역사의 진로가 결정될 것이다. 위기에 있어서 이성적 전망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성적 전망 없이 불안상태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재앙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이다. 불안의 에너지를 건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한**

박민영 ●

문화평론가이자 인문 저술가. 저서로 『인문학, 세상을 읽다』, 『즐거움의 가치사신』, 『이즘』, 『책 읽는 책』 등이 있으며, 한겨레문화센터에서 인문학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 나, 우리의 불안을 함께 헤아리는

임보라 ●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교인연대\*



## 우리 곁의 불안

지난 3월11일, 이웃 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 참사에 대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개미나 거미를 비롯한 인간들에 비해 아주 작은 동물들은 자연재해를 미리 내다보고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고 하지만, 만물의 영장이라며 오만함을 과시해오던 인간들은 오히려 이 같은 엄청난 재난 앞에서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 미사일과 같은 속도로 밀려왔다는 쓰나미,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위협, 물을 비롯한 필수 식료품 부족 등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광경을 시시각각 확인하면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스멀스멀 스며들고 있는 요즘이다.

어디 이 뿐만이라. 2011년 대한민국에 발붙이고 사는 이들은 분단 상황으로 인한 전쟁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온 지 60년이 넘었고, 가면 갈수록 심화 되는 양극화 현상 속에서 하루하루 생계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 수 또한 눈덩이 불어나듯 늘어나고만 있다. 현재로서는 점점 줄어가고 있지만, 천만 기독교인을 내세워가며 마치 이 나라가 본래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종교권력을 휘두르는 이들 또한 늘어난 가고 있는 지금, 불안감이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증가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 불안에 이르는 병

몇 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중의 하나인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이 쓴 『불안(Status Anxiety)』이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다. 이 책은 원제로 보면 '지위로 인한 불안'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 책 머리에 "지위로 인한 불안은 비통한 마음을 낳기 쉽고, 지위에 대한 갈망이 지나치면 사람을 잡는다."(9-10쪽)라고 꼬집고 있다. 불안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사랑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그리고 불확실성을 들고 있는데 잠시 그 꼭지들과 오늘의 현실을 이어보았으면 싶다.

\*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으로, 지난 2007년 말 차별금지법 훼손국면을 기점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http://cafe.naver.com/equalchrist.cafe>



1)사랑결핍: 말 그대로 사랑이 중요하다는데, '무시'라는 말을 사랑의 반대말로 쓰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무시의 결과, 즉 사랑이 결핍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며, 주눅이 들어버리게 되는지를 담고 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까지는 무수한 장벽이 존재한다. 장벽을 넘어 생존을 획득하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한 치열한 싸움을 벌이거나, 싸움을 피해 '살지 않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지로 내몰리는 가운데 우리는 '불안'을 직면하고 있다.

2)속물근성: 여기서 말하는 속물은 "하나의 가치 척도를 지나치게 떠벌이는 모든 사람"(29쪽)이며, 이 근성은 편견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일삼고 있으며, 이 속물들의 외면과 무시로 인해 불안과 함께 분노와 좌절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가치 척도'는 불행히 '하나'가 아닌 '여럿'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세분되어 가는 '하나들'로 인해 배제되어 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하나들'에 속하지 못하는 이들은 불안의 요소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현실 탓에 절망의 늪으로 빠져만 가고 있다.

3)기대: 여기서 기대란 물질적 진보를 뜻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대는 기대를 낳고, 낳는 무한한 희망의 전주곡이 아닌, 평등이 깨어지므로 생겨나는 좌절의 연속을 의미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지만, 대부분 현대인에게 있어서 작은 것, 적은 것은 하찮은 것을 의미한다. 물론 병든 잣대의 산물이라는 하지만, 더 많고, 더 큰 것, 더 높은 것으로 치달고 있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함으로 인해 낙오되고, 소외감을 느끼며 공황에 빠져가는 이들이 그 빠른 속도에 비례하여 많아지고 있다.

4)능력주의: 이러한 체제 안에서는 결국 가난이 고통을 넘어서 수치와 모욕을 안겨준다는 이야기이다. 이 시대는 정의를 기반으로 한 분배의 의미가 점점 더 퇴색해져 가면서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얼마만큼 부자인지가 가치 척도의 중심을 이룬다. 뿐만 아니라, 일등 국민이어야 하고, 중년쯤은 되어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고, 결혼은 물론이요 자녀도 당근 있는 '모범' 가정 이어야 하며, 병을 앓은 경력이 없어야 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며, 스펙의 결정판인 대학원 졸업장까지는 있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야말로 차별만능 시대에서, '그 밖', 혹은 '등등'은 열외일 수밖에 없다.

5)불확실성: 말 그대로 예측 수 없는 상황을 일컫는다. 특히나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자들 때문에 생존권을 비롯한 일할 권리, 성취감 등이 순식간에 박탈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가져가는 것은 평화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꿈을 파괴하는 암적인 현상이다.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20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여성들, 아주 노동자들, 늘어만 가는 노숙인들은 물론이요, "나는 아니야."를 외치며 착각 속에 빠진 이들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남 일로 여기며 연대하는 일을 귀찮게 여기다 뒤통수를 사정없이 맞는 순간이 되어서야 자신을 잠식해 가고 있던 불안의 실체를 깨달으며 통곡을 하는 이들. 이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 불안을 파는 사람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과 그에 따라 파생되는 온갖 불안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알랭 드 보통이 제시한 해법 중에는 '기독교'라는 꼭지가 있다. 그는 우리가 '개' 기독교라고 부르곤 하는 '그' 기독교가 아닌 "존엄과 기본적 자원의 평등"(334쪽)을 이루는 '본래'의 기독교 공동체를 상기시킨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를 불안을 제거하는 알약쯤으로 소개할 생각은

없다. 단지, ‘종교는 아편’이라는 호된 비판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아편’의 역할에 충실해지려고만 하는 점점 퇴보해 가는 종교의 현실 속에서도 ‘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고집하고 있는 나이기에 “고통과 변민과 불안과 대혼란으로 뒤덮여”(에스더 11장, 공동번역)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팁을 짚거나마 마무리를 겸해 나누어 보았으면 한다.

“조마조마하고 뒤숭숭하고, 몸이 편치 않은” 상태를 일컫는 불안은 ‘내 탓’이라기보다는 그 원인이 나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비롯된다. 불안을 느껴보지 않은 생명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이 불안을 미끼로 이익을 남기려는 집단 또한 계속 존재해 왔고, 그 집단 중에는 부끄럽게도 ‘종교’ 집단이 한 몫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다. 불안을 ‘팔아온’ 종교집단은, 구조적인 모순으로 양산되는 불안을 변혁의 몸짓으로 넘어서도록 권유하지 않는다. 오히려, 잠시 현실을 망각함으로 순간의 희열, 카타르시스를 맛본 후 다시 불안의 상태로, 그리고 또다시 망각, 불안, 망각, 불안의 상태를 반복 재생산해 왔다. ‘별이’를 위해서 말이다. 이 과정에서 본질과는 동떨어져 버린 영성운동이 활개를 쳐왔다. 하지만, 각 종파가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본래 이 ‘영성’이란 입에만 단 사탕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다. 온갖 외부 영향 탓에 왜곡되고, 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라고 할까. 때문에 영성회복의 주요한 통로인 ‘기도’도 나의 간구와 함께 그에 대한 신의 음성을 기다리는 ‘소통’의 과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박수치며 열광적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나의 일방적인 외침을 신의 귀에 억지로 심으려고 내지르는 행위가 기도라고 여겨져 왔다.

## 연대(solidarity), 나·우리의 불안함을 헤아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빙빙 도는 일상 속에서도, 모순덩어리인 삶의 자리에서도, 정의와 평화의 뿌리를 심어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 나 자신을 ‘투신’하기로 한 수많은 생명 지킴이들이여! ‘불안’이 엄습해 오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지니, 그 순간이야말로 오히려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기회라고 여기기를 바라본다. 고장 난 기계에서 불량품이 계속 만들어질 때 취해야 할 조치는 고장 난 기계를 일단 멈추고! 고장 난 부분을 제대로 고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수히 많은 불안의 요소들의 원인을 ‘함께’ 알아가고, 이에 맞서 ‘함께’ 연대하며 과감하게 수리해 나갈 힘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불안을 이겨내는 길이다. “나·우리의 불안함을 헤아리는”(시편 56) 이를 기억할 때, “그 어느 것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같은 곳)라는 고백이 우렁차게 울려 퍼질 때 “어둠은 그 빛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요한 1) ㉞

### 임보라 ●

서울 토박이로 우울 안 개구리처럼 살다가 1987년 5월과 6월, 눈에 덮인 비늘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길로 접어든 이래 쪽 한길을 가고 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으나, 진보적인 교단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는 향린교회에서 부목사로 재직 중이며,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무지개의 색처럼 다양한 정체성이 서로 공존하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존중받는 세상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라는 믿음 하나로 그 실체를 구현해내기 위한 방법에 골몰해 있다.





지난 1월에 일본을 다녀온 이야기를 글로 써 달란다. 그런데 영 글이 써지지 않았다. 요즘 일본 하면 불안, 공포, 슬픔, 죽음 같은 것과 동의어처럼 들린다. 그런데 거기에 '여행'이라는 말은 아무리 끼워 넣어보려고 해도 어색하고, 괜스레 민망해지기까지 했다. 처음 글을 써 보겠노라 흔쾌히 승낙했을 때는 이것을 빌미로 내 생애 처음 자유 여행, 거기에 내 조카와의 조금 특별한 여행에 대해 나 나름 정리해 보고픈 마음에 서였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 그 후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낫 놓고 보고 있는 동안 글은 전혀 써지지 않았다. 마감이 임박하면 어떻게든 써지겠지 하며 모른 척 미루어 놓기도 했지만, 마감일을 넘기고 또 넘기고도 글은 써지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포

기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되어 겨우 이렇게 쓴다. 이 역시 나의 여행의 일부분일까...

**당신은 여행자의 운명을 타고 났어요.**

작년 여름 어느날 타로점을 보았다. 사실 난 타로점 자체보다 그 타로를 보는 사람에 대해 궁금하여 찾아갔기에 딱히 궁금한 것도 묻고 싶은 것도 없었다. 단지 장난스럽게(당연히 답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했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운명을 타고 났는가' 이런 것도 타로에서 말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는 내 타로를 펼쳐놓자마자 내게 '당신은 여행자의 운명을 타고나셨군요' 라고 했다.

여.행.자.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당신이 이 말을 들었다면 당신은 어땠을까? 나...? 펑펑 울었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그가 여행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면 내용만으로

썩썩했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울지 않았을 것이다. 내게는 엄청난 불안이 있었다. 내 삶이 여행자의 삶일까봐. 그리고 그런 삶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의 말을 듣고 한참이나 힘들어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그 말의 의미를, 그것이 가진 생명력을 재해석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는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여행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실질적인 여행도 떠났으면 좋겠다. 그의 말이 내 귀에 속삭이는 어떤 운명자의 말처럼 내 깃개를 떠나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여행을 떠났다.

## 같이 갈래?

내 조카는 지금은 중학생이 되었지만, 그때는 산만하고, 툭툭 튀는 말로 교사로부터 늘 지적당하고, 많은 눈물과 작은 키로 친구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되려 끊임없이 그들을 무시하는 나름 문제 많은 6학년 남자아이였다. 그리고 5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담임의 심한 체벌과 무시로 아이는 더욱 거칠어지고 나아가 마음의 문을 닫고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상담을 받게 하려고 했으나 그것조차 강하게 거부하셔서 할 수가 없었다. 주변 어른들은 안타까워만 하고 있었다. 그런 아이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이 여행이 좋은 매개가 되리라 생각했다. 조카는 '해외여행'이라는 것에 그의 의도 같은 것은 따지지 않고 따라나섰다.

## 힘 빼기 연습

우리는 오사카, 나라, 교토를 여행했다. 우리가 방문한 여행지와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오

사카 여행'이라고 치면 나오는 그 블로그의 글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가기 전에 그 글들을 섭렵했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다녔다. 굳이 다른 것을 찾으려면 아마 우린 그들보다 한 두 곳 덜 갔을 것이다. 내가 그리 바지런한 여행자가 아닌데다가 욕심부리고 싶지 않았고, 특히나 어린 조카가 있어서 내쳐 달리는 식은 할 수도 없었다. 여행을 준비하며 분명 좋은 마음에 내가 먼저 함께 가자했음에도 조카가 너무도 부담스러웠던 시점이 있었다. 사소한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걱정되면서 '웬히 가자했구나'라는 생각으로 한동안 힘들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왜 이렇까, 왜 이렇게까지 부담스럽고, 두려운 걸까?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 어떻게든 멋지고, 좋은 사람이고 싶은 바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게서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

'이번 여행이 그 아이가 대단한 어떤 의미가 있기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고 싶어하는구나. 그리고 난 그런 멋진 이모라는 걸 새겨주고 싶어하는구나'

그래서 가기 전에 다짐했었다. 절대 무엇도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라. 욕심내지마라. 그 아이 뒤편은 그 아이가 감당하게 하자. 함께 한다는 것에 집중하자. 그리고 우린 함께 길을 가는 동행자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이 마음 덕분이었을까 여행에 돌아온 조카는 여행이 좋았다며 종종 여행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 기요즈미데라(교토에 있는 오래된 절)를 찾아가는 길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 온 대학생인 듯한 이들을 만났다. 우리에게 길을 물었지만 답해 주지는 못했다. 그들은 개의치않고 웃으며 힘차게 길을 갔다.

"이모, 나도 저 형들처럼 나중에 친구들이랑 여행 올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너 이렇게 잘 하고 있잖아"

"나 고등학생이 되면 친구들이랑 다시 여기 올래." **▶**

물 ●

요즘의 나

나의 시범지 않는 일상을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마음을 나누는 일 그 일을 하고 있다. 이제야 내 삶의 길을 내 힘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나, 결혼한다!”

친구들이 내뿜는 “크흠” 하는 소리를 들으며 내 장황한 결혼 서막의 장이 열렸다. 요거, 요거, 요래 다들 놀라는 걸 보니 한 번쯤 해 볼만도 한데? 그렇지만 사실 나는 아직 ‘나의 결혼’이라는 말 자체도 와닿지 않는다. 잡자리에 들 때쯤에야 비로소 “나에게 닥친 이 상황이 뭐냐.” 하며 천정을 말뚱말뚱 바라볼 뿐이다.

그래, 툭 까놓고 말해서 사실 엄청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내 나이 올해 스물아홉, 남자친구는 서른셋이다. 둘 다 가열 찬 연애의 소용돌이에 빠져 허우적거릴 나이도, 환상이 있을 나이도 아니다. “뭐, 그냥 대충, 집 구하고, 물건 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코웃음을 찢던 나는 며칠 전날 밤, 민우회 활동가로 있는 친구에게 ‘소식지에 기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문자를 보내고(정말 기고하게 되었다), 가족들과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하라!”라고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하루를 단식 투쟁과(그 이상은 힘들어서 못함) 침묵 투쟁(이것도 그 이상은 간절거리서 못함)으로 비장하게 보내고 난 뒤,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를 생각해 보았다.

“안 하라고, 정말 안 해?”

처음엔 일이 수월했다. 상견례 자리도 수월, 드라마틱한 양쪽 집안의 반대도 없었다. 부모님께서 예단과 패물은 서로 “하지 말자.”라고 합의도 하셨다. 그 러, 내! 준비하다 보니 엄마는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엄마는 여러 ‘결혼 선배’들에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셨고, 열이면 열, 딸의 원활한 시집 생활을 위해 “그래,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결정적인 것은 그릇가게 아저씨의 말이었다.

“아니, 어머니(용마모)! 누가 ‘나’ 생일선물 안 줘도 돼”라고 하면, 정말 안 주실 거예요? 당연히 그 집에선 예단하지 말라고 하죠. 예단은 어머니가 시택에 보내는 선물이예요. 누가 선물을 주는 줄 알고 받아요. 원래 다 모르고 보내는 게 선물이예요. 그래야 따님도 시택 가서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_-:: 나까지 덩달아 내가 ‘할 도리’를 안 하는 것인지, 어머니의 말씀을 너무 ‘곧이곧대로’ 듣는 것인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정말 예단을 안 해도 되는 걸까?” “어머니(남친 어머니)가 안 해도 되신다잖아.” “그래도 그제 경우가 아니지, 너 살아 봐라. 나중에 사이 안 좋아지면 서로 그때 뭘 해 줬네, 안 해줬네 하며, 너만 힘들어져. 그리고 나도 할 도리 다 해야 마음이 편하고.”

### “나, 결혼 안 할 거야!”

딸 때문에 긴장한 엄마를 보는 게 안쓰러웠던 나는 남자친구에게 엄마의 입장을 전달했다. 남자친구는 그런 건 필요 없다면서 ‘형식적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오히려 내게 따지기 시작했다. 엄마 마음을 몰라주는 남자친구가 야속했다. 결국, 또 나는 엄마에게 남자친구의 입장을 전달했다. 엄마는 남자친구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며 또 내게 따지기 시작했다. 이번엔 엄마가 야속하다!

아! 답답한 마음으로 며칠을 두 사람 잔소리에 마냥 죄인처럼 지내던 중, 나는 급기야 내 통장의 잔고를 보고 말았던 것이다! 결혼하기 전 몇 달만 신나게 놀겠다고 얼마 전 일을 그만두고 뛰쳐나온 나는 날 위해 쓸 돈이 완벽하게 사라졌음을 깨닫게 되었다. 결혼준비 하면서 어른들의 불안으로 시작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격식이 난다.”라는 이야기에 장단을 맞추던 사이, 통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던 것이다.

“그럼, 그림 배우려고 했던 것은? 운전면허는? 대학원 공부하려고 했던 것은? 여행은?” 게다가 두 달 동안 한 푼이라도 아껴 보려 발뽀 팔며 보낸 시간의 결과가 겨우 이런 거라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도대체 내가 왜 그 하루를 위해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억울했다. 나는 울면서 남자친구와 엄마에게 “나, 결혼 안 할 거야!”라고 외치고 말았다.

### “정말 내가 그날의 주인공 맞니!”

사실 남자친구와 나는 음악공연을 준비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다가 정이 들었다. 돈이 생기면 곧장 함께 여행을 떠나던 남자친구가 연애하는 동안에는 너무 멋있었는데, 결혼준비를 시작하니 왜 이렇게 ‘대책 없는 인간’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다. 반면 나는 낭만도 꿈도 없이 “돈, 돈!” 하는 인간으로 보이게 되니 신세가 처량해 눈물만 줄줄 나오는 것이다. 남자친구에게 “넌 정말 몰라도 너무 몰라!” 와 “정말 내가 그 날의 주인공 맞니!”를 반복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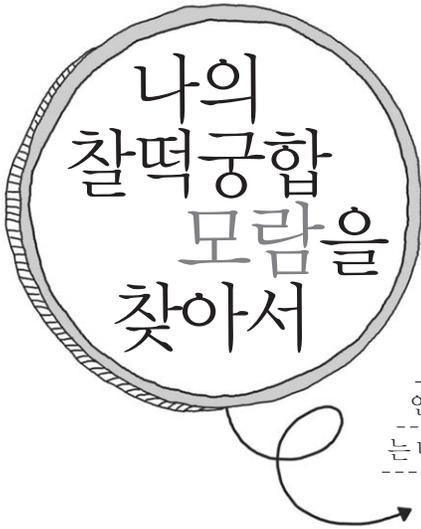
남자친구도 그제야 상황의 긴급함을 알았나 보다. 이를 을 싹싹 빌며 정신을 바짝 차리겠다고 약속에 약속을 거듭한다. 마음은 풀려 진정되었으나, 이내 마음이 씩씩해지고, 돈 생각에 머리를 굴려야 할 남자친구도 불쌍해진다. 우리의 낭만적인 연애는 순식간에 어디로 갔을까? 부부로서도 낭만적으로 살아보겠다던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멋진 엔딩이 아니라서 이 글을 읽는 모두에게 미안하지만,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고 결혼식은 어른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로 했다. 주례 없이 공연처럼 기획해 보자던 결혼식도 부모님의 “근본 없다.”라는 핀잔에 주눅이 들어 주례를 구해보기로 했다.

남자친구가 위로한다. “결혼식이 우리의 마지막 날은 아니잖아.” **㉠**

**추신** 다시 조금은 멋진 엔딩을 위해 덧붙여본다. 지금 우리는 함께 해외봉사단을 알아보고 있다. 결혼 후 1~2년쯤 함께 착하게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자고 다짐했다. 할 수 있을지는 준비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의 이 낭만적인 선택도 현실의 벽 앞에 슬픔으로 부딪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용마 ●**

대안학교 교사였던, 여행을 준비하는, 희망이란 말을 관념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스물아홉 소..녀?^^



반짝반짝 민우회원님 안녕하세요? 봄이 올 듯 말듯 여전히 찬바람이 불어요. 찬 공기 사이로 봄 냄새를 맡으려 쿵쿵거려봅니다. 새 계절을 맞이하려니 기분이 살랑살랑. 마음 편한 이들과 같이 소풍도 가고 싶고 소담스레 일상을 나누고 싶기도 하고. 그런 편한 공간,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아! 민우회원이라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모람들이 있으니깐요.

주중 요일마다 열리는 시끌벅적 재미난 모람들 그리고 매력을 넘어 마력적인 회원들을 만나면 기분도 기운도 UP! 어느 순간 모람 정모를 손꼽아 기다리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강선미(풀) ● 한국어성민우회 반차별·회원팀

모람세상([www.womenlink.or.kr/moram/](http://www.womenlink.or.kr/moram/))에 들어왔더니 오와 정말 흥미로운 모람들이 한 두 개가 아니라고요? 당장이라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이해해요. 그런데 몸은 하나인데 다 할 수도 없고 아 정말 행복한 고민. 고민은 짧게 시도는 바로! 그래서 <찰떡궁합 모람 찾기>를 마련했어요.

민우회가 자랑하는 모람의 매력에 빠질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찰떡같이 쫄깃한 재미와 일상 속에서 여성주의를 실천하는 멋진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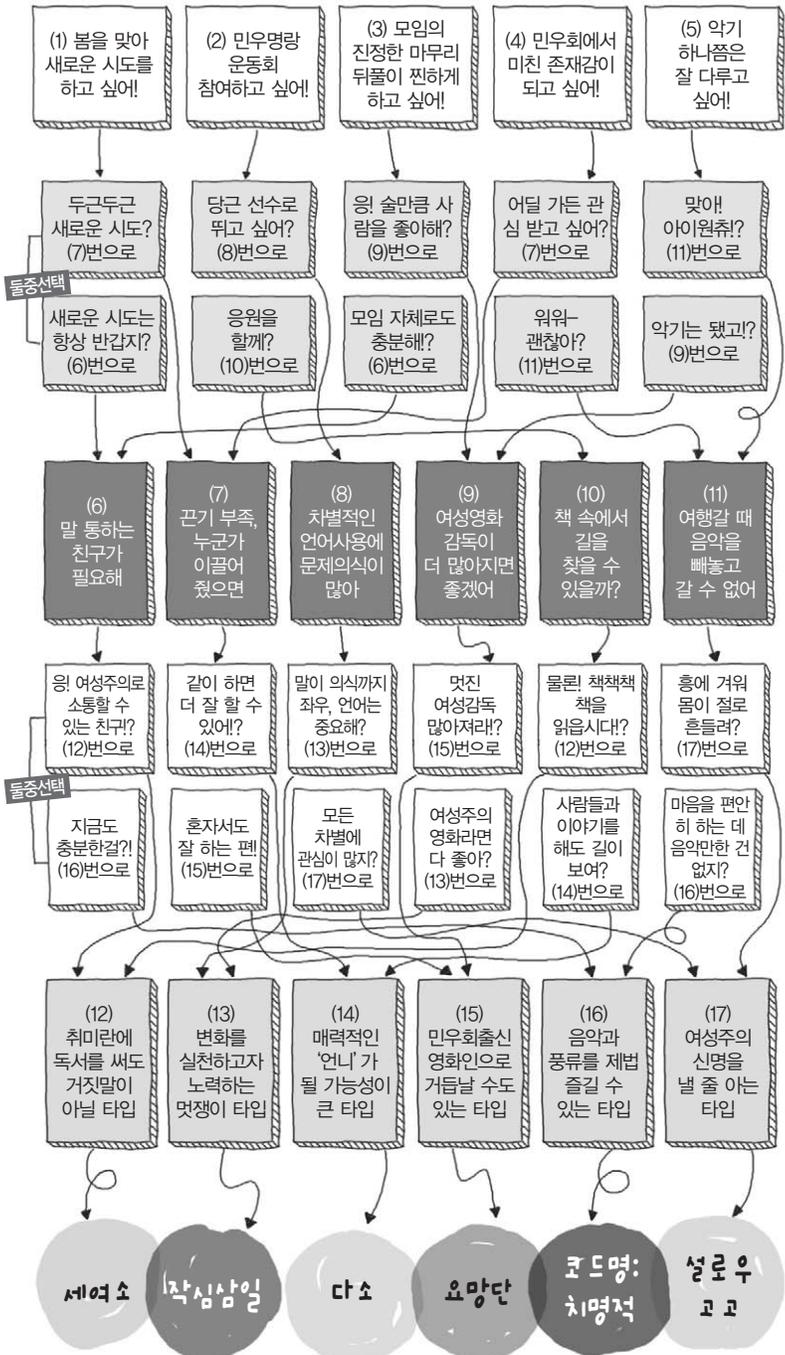
겉터앉아 소담스런 얘기 나누고 싶게, 곱게 잘려진 손톱 같은 달 아래 비누도둑의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를 듣고, 싶어요. ;)

**나와 딱 맞는 모람을 찾으러 GO GO!**



# 활력공합 모험하기 START

1~5번 중에 하고 싶은 것부터 시작!



## ▶ 세어소 - 세계로 가는 여성주의 소설읽기 (격주 목요일)

심미 되는 책과 사람들, 세계 각국의 여성작가들과 소설 속 주인공들을 만나는 소설로 가는 세계여행! 올해는 책 읽어주는 모험으로! 목소리가 멋진 민우회원들을 기다리며!

## ▶ 작심삼일 (격주 수요일 or 목요일)

작심만 하고 삼일이 훌쩍, 실망은 금요일 3일+3일+3일...무한대라면? 여성주의 사진 제작, 수제 초콜릿 만들기 등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고 몸 속 체지방을 늘린다!

## ▶ 다소 -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들의 소소한 즐거움 (격주 수요일)

민우회 사무실이 장충동에 있을 적부터 함께 한 장수 모험. 매력적인 언니를 향시 반기어 줍니다. 운동이면 운동, 책이면 책, 여성주의면 여성주의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심신을 단단하게 하길 원한다면 오시라!

## ▶ 요망단 (격주 월요일, 영화 번개 수시)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 속 여성주의를 속닥거리고 싶다면 바로 요망단원으로 합류 요망(要望)! 영화는 여럿이 보고 같이 여운을 느껴야 한다! 보기만 하지 않는 직접 단편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 여전한 모험 4년차.

## ▶ 명치 - 코드명: 치명적 (격주 목요일)

기타 선율에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민우회원이 많다. 기타도 없고 칠 줄도 모른다? 걱정마시라, 악보, 코드 보는 것부터 스트로크까지 서로서 가르쳐주며 같이 가는 명치! 작년 '동무들아'에서 시작 '노킨온헤브스도어' 마스터한 저력이 있는 모험.

## ▶ 설로우고고 - 여성주의 풍물모임 (격주 수요일)

눈이오나 비가오나 풍물을 치며 여성주의 신명을 하늘로 달게 하는 모험. 일주일 동안의 온갖 스트레스는 장구, 북, 징 가락에 다 날려버릴 수 있다. 풍물 악기 대어 가능.

# 나이듦에 대하여

주현정(주가이) ●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할머니와의 이별

설 연휴 내내 나이는 못 속인다고 병이 나서 누워 있다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다. 아픈 몸을 이끌고 전주까지 운전해 갔다. 가는 내내 눈물을 참아가며 ... 할머니는 노환으로 고생하시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마지막 뵈었던 할머니는 노환으로 입원 중이셨다. 할머니는 눈도 못 뜨시고 날 알아보지도 못하셨는데, 너무나 야위고 지치신 모습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평소 애정표현을 하시는 분은 아니셨지만 할머니는 날 참 많이 사랑해주셨다. 할머니 집에서 태어나 돌 즈음까지 컸을 뿐 아니라, 중학교 때 식구들이 모두 서울로 올라왔을 때도 중학생이라 전학이 안 되었던 나는 할머니 집에서 몇 달간 살았다. 서울에 와서도 방학 때 마다 할머니 집에서 방학을 보내곤 했었다. 졸업하고 결혼하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다가 몇 년 만에 아파서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많이 죄송했다. 나는 할머니의 무나물무침과 “내세끼 왔는가.” 하며 잡아주시던 따뜻한 손을 좋아했다. 할머니 영정사진을 수줍게 끌어안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 사랑해요.” 한 번도 못했던 말이다.

모두가 누구보다 장수하실 거라 믿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십년이 훌쩍 지났다. 그일은 당시의 내게는 정말 뜻밖의 일로 느껴졌고 그냥 한없이 슬프기만 한 일로 느껴졌다. 그런데 오늘 할머니의 죽음은 그 때와는 사뭇 다르다. 할머니가 고령이신 관계로, 그리고 여러 사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되어버린 아빠는 환갑이 훨씬 지난 나이에 사위라는 이름표를 달고 상복을 입으셨다. 그리고 똑같이 상복을 입은 엄마와 또 부쩍 연세 드신 삼촌, 숙모, 이모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 추억과의 재회

이사를 앞두고 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온 집안을 몇 주 동안 뒤집어 놓았다. 난 사실 보관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빠가 우리 남매의 성적표와 상장 등을 잘 보관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왔고 그것들 안에서 찾게 되는 추억의 부스러기들을 나 또한 즐겼다. 그게 좋아서 나는 뭐든 잘 보관하는 편이다. 사실 '집 최대한 줄이기'는 나에겐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다. 일단 옷을 정리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게 마음을 비울 수 있었다. 그런데 추억이 묻어 있는 것들을 버리기는 쉽지 않다. 1년에 몇 차례씩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혹은 다른 이유로 적었던 일기들이 있다. 일 년에 열장이 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것도 드문드문. 정말 이번엔 어쩔 수 없이 버려야겠구나 하고 꺼내다 다시 펼쳐들고 읽는다. 울다가 웃다가 또는 화를 내다가 다시 고이 덮고 말았다. "안 되겠다 뜯어서 파일에 라도 넣어두자."고 다짐한다.

이렇게 이런저런 정리를 하면서 나는 많은 추억과 만났다. 당시엔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쓴 위문편지들에서 애뜻하게 사랑했던 우리를 만났고,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어린 시절의 아들들을 만났고, 열심히 고민하고 계획하며 살았던 나를 만났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애뜻해 하고, 아들들을 어루만져주고, 내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즐거워했다.

무리해서 자동차를 사던 시절에 썼던 일기에는 무리한 지출에 대한 자기 합리화로 2010년까지 10년 탄다는 계획을

세워 크게 별 표까지 쳐놓았다. 지금까지 타고 있으니 그것이 자기합리화가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어 흐뭇해진다. ㅎㅎ

이런 소소한 하나하나가 다시 추억으로 돌아온다.

## 나이 든다는 것

어렸을 적 생각에 '30살'이라는 나이는 참 크고 단단하게 느껴졌었던 같다. 굉장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내 나이 '서른'은 사실 그렇지 않았다. 그냥 여전히 철없는, 작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나'였다. 그런 30도 훌쩍 넘어 40도 지났지만 지금도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분명 나는 나이 들고 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 든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분명 나이 든다는 것에는 사랑하는 이들 또는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에 익숙해져야만 함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 만큼 추억의 깊이 또한 분명 깊어진다. 난 여전히 늘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그러면서 나이 들고 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는 또 다른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ㄹ

### 주가이 ●

미니스커트와 하이힐로 스스로 나이들을 거부하고 있는 뒷모습이 예쁜(?) 주가이. 사실 재미난 글을 쓰고 싶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재밌게 써보려 했는데, 역시 재밌게 쓰기 어려운 주제였음. ^^



# 만추

## 이른 봄, <만추>를 보다

김윤아 ● 영화평론가

이른 봄, <만추>를 보러 간다. 일부러 아줌마 관객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일요일 오후 영화관을 찾는다. 소실된 이만희 감독의 전설적인 <만추>는 보지 못했지만, 김수용 감독의 <만추>는 본 적이 있다. 오래 전에 보았지만 내게는 처음 만난 남녀가 정서적 교감도 없이 기차에서 정사를 나누던 파격적인 영화로 기억된다. 어린 나이에는 정말 이해 자체가 불가능한 영화였다. 그래서 <만추>가 다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주인공인 <색.계>의 탕웨이와 <시크릿 가든>의 까도남 현빈이 벌일 파격적인 정사 신부터 기대하는 건 당연지사.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적 섹시 스타인 그녀와 군입대날 2천명의 여성 팬들이 배웅을 나간 바로 그 자가 아닌가. 그런데 이렇! 영화는 그런 기대를 조금도 충족시켜주지 않는다.

그 대신 내보이지는 않지만 진심을 느끼게 한다. 느낄 수 있는 사람만 느끼고,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라고 한다.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두 남녀의 마음결을 애써 담담히 숨죽이고 따라간다. 이미 일주일에 이틀씩, TV 앞에서 싸가지 없지만 잘생긴 재벌 2세 백화점 사장님한테 마음을 빼앗겼고,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감동 만땅으로 평평 울어줄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영화에 신파는 한 오라기도 찾아볼 수 없다. 사실 2011년 <만추>의 감독이 김태용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건 그리 이상할 일도 아니다. 소녀들끼리의 사랑을 그린 <여고괴담 2>의 감독이고, <가족의 탄생>을 만든 감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미 이 영화에는 노골적인 정사신 같은 것은 없으리라는 것을 예견했어야 한다.

### '아줌마들'의 공감을 얻다

영화가 시작되자 잠시 후 보게 될 영화에 대해 수다를 만발하던 아줌마 관객들이 순간 찬물 끼얹은 듯 조용해진다. 이걸 분명 발랄한 젊은이들이나 아저씨 관객들을 위한 영화가 아니다. 낯이 나간 듯 비틀대며 집 앞 길을 걸어 내려오던 여자가 다시 자기 집으로 향하는 그 장면은 결혼에 지친 여자들이 한 번 씩은 해봤거나 상상을 해봤던 그런 장면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만추는 한때 창창했던 아가

씨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적당히 삶의 이력이 생긴 다음에, 혹은 여러 삶과 사랑의 고비 고비를 넘으면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며 뭔가 알게 된 인생의 가을을 짐작하는 어리지 않은 여자들에게, 조용한 관조와 반추를 느끼며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화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남편을 죽인 애나(탕웨이 역)에게 나를 포함한 영화관 안의 아줌마들은 순식간에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심정적으로 동일시되니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죽인 흉악범이 아니다. 그녀는 그럴 만했다. 남편이 죽을 짓을 한 거다. 자세한 앞뒤 사연은 모르겠지만 화장기 하나도 없는 여자의 얼굴은 친근하다. 그 한 장면으로 아줌마 관객들은 이미 그녀 편을 들기로 마음먹는다.

까도남 스타일의 현빈 같은 진짜 제비라면 여유 있는 누님들은 알면서도 속아줄 법도 하다. 아니 땡빔을 내더라도 그런 제비 동생 하나쯤 삶의 액세서리로 삼고 싶다. 그런데 영화 속 제비의 누님, 그녀는 더 진하고 야하게 질척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 삶의 의미는 사라진다. 의미가 없는 삶이란 살 가치가 없다. 그녀는 당연한 순서처럼 자유의지로 세상에서 사라진다. 사랑이 없는 삶은 죽어 마땅하다. 한편으로 무력해 보이지만 그런 그녀가 리얼하다. 돈 많은 미국 남자와 부족하지 않게 사는 여자는 행복하지 않으나 보다. 어쩌면 영화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허망하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제비 누님이나 애나는 사랑을 얻지 못해 죽거나 감옥에 갔다.

## 사랑은 자신을 찾아가는 것

어쩌면 여자들에게 사랑은 밥 같은 거다. 생일 이벤트나 축하선물처럼 매일 거창한 것을 원하는 건 아니다. 섹스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사랑은 매일 먹는 밥과 같아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애나가 원하는 것은 일상의 밥 같은 사랑이었으리

라. 그걸 깨달으려 그녀는 남편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녀는 약속도 하지 않은 그 사내를 기다리기로 한다. 사랑은 의지와 결심이다.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작심한 듯 보인다. 지금 글을 쓰면서 다시 생각하니 탕웨이의 연기가 탁월하다. 걱정적이고 드라마틱한 연기만이 잘하는 연기는 아닐 터이다. 그런 이쁘고 가녀린 식물 같은 여자가 어딘가 미국의 고속버스 휴게소 찻집에 그렇게 앉아 있을 것만 같다. 나팔꽃처럼, 덩굴식물 특유의 유연함과 생명력으로 해가 뜨면 꽃을 피웠다가 해가 지면 꽃잎을 달기를 반복하며 매일 변함없이 그 곳에 뿌리내리고 있을 것만 같다. 그녀가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꼭 그 남자가 아니어도 상관없겠다. 그녀의 기다림은 자신의 결심을 실천하는 것일 뿐 타인을 향한 적극적인 욕망의 발현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한 여자의 마지막 표정이 인상적이다. 보일 듯 말 듯한 미소와 평화가 깃들어 있다.

영화는 두 남 녀가 버스 안에서 우연히 만나고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3일 동안의 이야기와 그 후일담을 “그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조용히 속삭이듯이 그려낸다. 각자의 삶을 살던 사연 있는 두 남 녀가 만나,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이 흔들리고, 또 생각지 못한 인연에 휩쓸려가고, 그 남자 혹은 그 여자가, 그러니까 내가, 아니 당신이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출렁이는 감정이 있지만 그 출렁임을 완전히 절제하고 속으로 삭여내는 이야기. 영화를 본 직후에는 아마도 당신이 기대했던 장면들을 보지 못해 의아하고 지루해 한숨이 폭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에게 두고두고 오래 기억될 영화, <만추>. ㉞

### 김윤아 ●

올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는 한 남자아이의 엄마이며, 한 학기에 수백명의 대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해묵은 시간강사이고, 영화와 애니메이션이라는 재밌는 공부의 길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작은 90의 아줌마 평론가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친마산이 보이는 곳으로 이사하여 아침마다 컷튼 젖히는 일이 행복한 일상이 되었다.

## 그게 최선입니까?

김자현 ● 행복중심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



직원 신분으로서 생협 활동을 해오다가, 조합원 대표인 이 사장을 맡는 것이 15년 생협 활동의 최선인지 사실 생각해 보지 않았다. 직원들이 애정을 담아 만들어준 환송 동영상 을 보면서 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다시 곱씹어보았다. 최선이었나? 차선의 선택이었나?

생협활동을 열심히 해보자고 결심한 한 계기는 96년 일본 고베생협을 방문하고서였다. 95년 한신(고베)지진 당시, 주민지원의 거점이 되었던 생협 센터의 역할을 들으며 “생협 에서 이런 역할이 가능해!”라는 감동이 있었다. 연이어 방 문했던 생협이 만들고 운영하는 노인주거요양시설 ‘협동의 뜰’에서는 이용자 대다수가 여성노인임을 확인하고 노인문 제는 결국 여성문제임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다가오는 40 대에 대한 불안함으로 가입했던 민우회와 생협, 민우회로 부터 출발한 민우회생협이 열심히 커갈 수 있도록 노력하 면 내 노후가 보장되지 않을까 싶었다.

우선 생협을 협동조합 틀로 만드는 데에서 출발했다. 그리 고 실질적인 조합원 참여가 보장되는 조직분권을 이뤄내 고, 행복중심이란 비전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아 직 우리 생협의 기반은 약한 것 같고, 내가 보고 싶은 모습

을 일구어내지 못하고 있다. 규모가 작아서일까? 그동안은 쪽 규모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만 생각했었다. 솔직히 말 해, 다른 생협들의 성장에 배가 아프기도 했다. 그러면서 생협을 떠올리며 느끼던 설렘이 주는 행복함을 잃어버린 듯싶었다. 무엇을 봐도 생협과 연관 지어 떠오르던 아이디 어도 멈춘 듯했다. 이제 떠날 때가 온 것일까?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을 저술한 레이드로 박사는 “단 지 협동조합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사 회를 건설하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협동조합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지 않으며 보다 좋은 사회질서로 나 아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할” 지도자로 사업적인 면에 서 비전문가인 조합원 지도자의 훈련과 양성을 강조하였 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긴급과제는 전문가나 기술자만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조합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난 생협의 이용고에만 연연하면서 궁극적인 꿈과 희망을 잊었던 것이다.

이제, 실무전문가라는 어깨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지만 설 레는 마음으로 조합원 모임에 간다. 여성민우회생협이 그 리는 소박한 꿈, 행복중심이 어떤 색깔이며 어떤 그림인지, 누구와 함께 그리면서 실현할 수 있을지, 만나는 조합원들 과 지역주민들이 깨닫게 해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몸담 았던 생협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는지 모르지 만, 생협을 통해 다시 한 번 설레고 행복 하고 싶었던 나 자 신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

김자현 ●

94년 생협 조합원 기립, 96년 생협 실무자로 취직, 2000년 생협법인 창립과 더불어 상무이사 역임, 2011년 2월 19일 행복중심 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으로 선출.

# 우리 지부 대표를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2011년 총회를 통해 각 지부의 대표가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이번호 9개의 시선에서는 기대와 희망을 담아 각 지부의 대표 소개를

담았습니다. 민우회를 대표할 새로운 지부 대표의 매력 속으로 빠져봅시다~!

**남서** 우리 대표가 짱! 조성화 대표를 소개합니다.

짜짜!! 조성화 대표는 1994년 남서민우여성학교, 상담2기 교육을 이수한 준비된 회원인 학구파랍니다. 꼼꼼하게 점검하는 일, 늘 약해보이지만 외유내강 끈기와 께일듯 하지만 옳은 일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강단이 있습니다. 또한 자타공인 하는 착한여성 콤플렉스가 있죠. 스스로 고생인줄 알면서 필요한일에 기꺼이 몸을 던지는 조성화쌤! 감사해요!^^

이경란 대표

시 무 실



조성화 대표

**남서** 다양한 감수성의 부지런한 왕언니, 이경란 대표를 소개합니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짠~하고 나타나는 왕언니! 다양한 감수성의 부지런한 언니! 수다는 물론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할 때도 윤기 나는 목소리, 호탕한 웃음과 즐거운 유머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카리스마를 지녔죠. 주변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선 자신의 실수담을 거침없이 공개하기도 하죠. 심지어 다이어트도 맘만 먹으면 척척 해내는 굳은 의지의 여성입니다. 동네에서 지역으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대한민국에서 제3세계로, 그녀의 관심은 늘 움직입니다. 민우회가 좋아 십수년을 한결같이 민우화와 함께해온 이경란 쌤. 올해 남서민우회지부와 남서민우회생협을 중흥무진 열심히 파이팅하시길!

**서울 동북** 민우회 전도사, 오경훈 대표를 소개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오경훈 선생님에게 민우회 설명을 듣던 분이 물었습니다. 조곤 조곤 설명하는 모양새가 꼭 전도하는 것 같았나 봅니다. 작년 한해 서울동북 여성민우회 대표로 활동하며 평생회원 모집과 공간마련 후원행사 등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오경훈 선생님이 부탁하면 왠지 들어줘야할 것 같다고 합니다. 오경훈 선생님은 조용히 사람들은 움직이는 힘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회원들에게 민우회로 오라고 전도하고 있네요.



## ○ 9 개의 시선 - 우리지부 대표를 소개합니다



고양·파주 진지함의 종결자, 김민문정 대표를 소개합니다.

참 진지한 김민문정, 어쩌나 그런지 농담으로 던진 말에 '자 그럼, 이 내용으로 토론을 하거나 회의 안에 붙이지요?'로 답한다(모두 파당). 잠은 언제 자며 소는 누가 키우는지 모를, 일 벌이는데 종결자(?)이다. 그런 그녀가... "하나 하나 길을 찾고 새로운 길을 열면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어요. 어떤 것은 이미 길이 열려 있는데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새로 길을 내야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내는 일이 현재의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의 진지한 표정으로 부담과 희망을 담아 인트라넷에 올린 글로 소개를 대신한다.

광주 열정과 자신감으로 뚝뚝 뭉친, 조영임 대표를 소개합니다.

언제나 넘치는 열정으로, 넘치는 자신감으로 모든 일에 앞서 가시는 대표님. 그 많은 열정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곳곳이 그 많은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저기 앞에서 우리에게 손짓을 할 것만 같다. 어서 오라고 빨리 오라고, 항상 우렁찬 목소리로 열변을 토하시는 대표님. 2011년에는 좀 더 낮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길...(ㅋㅋㅋ)



조영임 대표

군포 인자한 소녀, 김인자 대표를 소개합니다.

소녀가 한분 계세요^^ 낮가림, 수줍은 미소,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 애교작렬. 이뻐처럼 자상하고 인자한 김인자!! 우리를 딸처럼 예뻐 해주시는 대표님은 생일에는 손수 예쁜 편지지에 생일축하 편지와 선물을 챙길만큼 활동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세요^^ 요즘 우리 대표님은 엄청 바쁘세요. 왜냐하면, 사무실 기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거든요. 부동산중개 사무실로, 후원자 찾아 여기저기 기웃기웃. 맨날 "아우~죽겠다"를 연발하시지만, 표정만큼은 늘 즐거워하시는 미소천사예요. 늘 활동가들을 믿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대표님이 계셔서 군포는 오늘도 행복!! 만땅고 예용^^





**진주** 진주같은 “손여사”, 손미옥 대표를 소개합니다.

초록색을 좋아하고 2남 1녀와 강아지 ‘예빠’를 기르며 하동에서 (지리산팔배개펜션)을 운영하는 여성 CEO입니다. 마음에 치유가 필요한 회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책으로 읽은 도법스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은 것처럼 전해주시는 진지 부인이십니다. 사회를 바라보는데 가끔 독특한 시각으로 접근해 상근자인 우리들을 긴장과 함께 성숙시켜주는 멘토이기도 합니다. 켈트로 만든 가방이며 지갑(그 기본 색은 초록색이지요)을 선물로 주실 때는 마음 넓은 큰언니이기도 합니다. 해쓱음수련회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회원들을 즐겁게 하고 ‘민우회 안에서 나는 성숙할 수 있었다’고 과감히 말하는 멋있는 그녀!! 2002년 지방선거때 여협언니들에게 얻은 별명, “손여사”. 진주에서 만날 수 있는 그녀, 한 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원주** 4주치의 관찰과 체험, 정.유.선. 대표를 소개합니다.

큰 키에 단발 생머리를 한 그녀를 만난 지 이제 4주째. 딱 4주치의 관찰과 체험만큼만 소개하는 수밖에! 어떤 정보도 선입견도 없는 순수한 “첫 느낌”을 바탕으로 그녀에게 어울리는 단어들을 떠올려봅니다. 길다(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크다(눈 · 입), 흥분(얘기하다가 곧 질), 정의(자주 언급하는 단어), 시민단체(꽤 오랫동안 인연이 있어온 듯), 행동파(우물쭈물하는 나에 비해), 책(처음엔 항상 들고 다니시더니 지금은 강ㅋㅋ), 두 공기(보통 한 주걱은 더 뜨는), 민우회(은 종일 민우회 생각으로 현재 두통약 복용 중) 이것으로 그녀에 대한 감정을 더 느끼시는 분들은 원주여성 민우회 소모임과 강좌로 달려 오삼~ 왜냐 그곳에는 항상 그녀가 있으니까^^



**인천** 구수한 보리 내음이 나는, 신소영 대표를 소개합니다.

인천여성민우회의 신소영 대표님은 아직도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을 시켜보면 알아요. 무언가 이야기할 때 금방 얼굴에 홍조를 띠며 연신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하죠. 대표씩이나 돼서 늘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면 약간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하하하! 실제로 좀 촌스럽게 생긴기 했어요^^ 그래도 구수한 보리(별칭) 내음이 묻어나는 여유로움과 내면에 숨겨진 강한 신념을 가진 참 일꾼! 민우회 대표 말고도 여기 저기 걸쳐서 쓰신 감투가 여러 개 있는 걸 보면 의협심을 타고난 것 같기도 하고... 아마도 그 못 말리는 열정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동참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표님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실 랍니까!!



**춘천** 새로운 카리스마, 신현암 대표를 소개 합니다.

2011년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신현암 상임대표는 친환경 급식 네트워크를 비롯, 춘천지역의 많은 시민단체 활동을 한 내공의 소유자입니다. 그만큼 춘천은 그녀의 대표 취임에 많은 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과 관련해 관심이 많은 그녀는 전태일 사이버 노동대학에서 공부하며, 식당여성노동자 인권환경 프로젝트인 [함께짓는 맛있는 노동]을 통해 춘천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민우회와 춘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신현암 대표! 그녀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암**



## 고양 · 파주여성민우회

### 민우회리강좌 “천원의 행복”

이른 봄날, 파주에서 좋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슬프고 아픈 일이 생겼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같은 공간, 고양 · 파주여성민우회 파주성폭력상담소!!!

이곳에 반기운 손님이 오십니다.

만화로 인권과 교육 세상사는 이야기를 잔잔히 들려주시는 박재동화백을 모십니다.

- 일사: 3월 18일(금), 오전10시~12시
- 장소: 파주성폭력상담소

### 자기성장을 위한 춤 테라피

보여지는 춤이 아닌 내만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내면의 춤. 10년이 걸려도 해결안되는 몸치·박치에서 탈출. 행복한 관계, 편한 관계를 만드는 방식 배우기. 일상의 스트레스를 떨치고 슬림한 몸매 만들기.

춤으로 아름답고 리듬으로 바뀌는 삶.  
(수강료: 회원 10만원, 비회원 12만원)

- 일사: 3월 15일(화)~4월 26일(화), 총 7강(주 후반: 오전 11시, 직장인반: 오후 7시)
- 장소: 미디어시민연대 (주엽동 문촌마을 10단지 상가 동부썬프라자 2층)

### 우리 춤 감상

한국 춤의 멋과 흥으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 누구라도 알기 쉽고 배우기 쉽게 발동작과 춤사위를 중심으로 기본부터 익히

기.(강사: 이연실)

- 일사: 3월 14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함께누리 풍물방 (백석동 백석마을 7단지 아파트 지하상가)

### 민우회리강좌 “그녀들의 삶과 꿈에 날개를 달자”

소문과 수다를 통해 만들어지는 우리들의 소통의 문화를 들여다보기.

낯선 ‘페미니즘’ 과의 대면을 통해 나에 대해 좀 더 솔직해 지기.

- 일사: 3월 22일~4월 19일, 매주 화요일, 오전10시~12시(총5강)
- 장소: 고양 · 파주여성민우회 교육장

### 김원희와 함께 에니어그램

에니어그램이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형성하게 되는 아홉 가지 성격유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게 되는 내적 여정입니다.

수강료: 정회원 10만원, 비회원 13만원 (교재비포함)

- 일사: 3월 2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총 12강)
- 장소: 너머서꿈터 (장항동 하이베라스 4층)

### 9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경력단절여성, 성폭력예방 지킴이 되다>, 성평등에 입각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일사: 3월 23일(수)~4월28일(목), 매주 수, 목,금 9:30~16:00 (총100시간)
- 장소: 고양 · 파주여성민우회 교육장

## 파주여성민우회

### 다솜지기 모임

다솜누리 청소년 학습지도 및 멘토링 자원봉사자 다솜지기의 친목 도모

- 일사: 3월 12일(토)
- 장소: 미정

### 여성주의 상담원 양성교육

여성주의적 관점과 전문적 상담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원상담원 양성교육

- 일사: 3월 17 ~5월 26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아모레퍼시픽 4층 교육실

### 여성 리더십 교육

여성들의 자기 긍정성을 회복하고 성평등의식을 가진 지역 여성 리더를 양성한다.

- 일사: 4월 예정,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장소: 광주시청차미디어센터 1층 세미나실

### 첫번째 민우데이

회원대상 강좌... 회원이 희망이다.

삼겹살 파티

- 일사: 4월 중
- 장소: 민우벚꽃

## 군포여성민우회

### 한부모가족 캠프

한부모가족의 단합과 심을 위한 캠프를 진행합니다.

- 일사: 4월 23일~24일
- 장소: 강화도

### 운영위원 및 상근자 워크숍

- 일사: 4월 15일~16일
- 장소: 경기도 인근

## 서울남서여성민우회

### 나를 찾는 특별한 즐거운-완경

주 1회로 5강의와 6회차는 수목원 견기와 명상

- 일사: 4월 20일, 27일 5월 4일, 11일, 18일, 25일
- 장소: 미정

## 4월 맛보기-지리산 둘레길 걷기

자연 속에서 4월과의 만남, 나와이 만남

- 일사: 4월 23일(토), 이른 아침~저녁
- 장소: 미정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달맞이와 함께보는 여성영화

안젤리나 졸리, 위노나 라이더 주연의 "처음 만나는 자유"

- 일사: 3월 28일(월), 오전 10시
- 장소: 교육장

### 기획팀 모집

**【생강팀】** 의회방청, 성별영향평가, 지역자치 공부를 합니다. 1·3주 화요일 10시

**【문화팀】** 여성주간 행사, 소모임 기획, 되살림 장터를 진행 합니다. 2·4주 화요일 10시

**【오아】** 도봉구의 성폭력 지원체계 모니터 활동을 합니다. 2·4주 금요일 10시

**【달맞이】** 여성의 몸, 건강에 관한 책과 영화를 봅니다. 2·3·4주 월요일 10시

**【교육기획】** 민우여성학교를 포함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 풍물패 다꾸리 신입반 모집

주 1회, 참가비 3만원(월)

- 일사: 매주 금요일 오전 10~12시
- 장소: 제 2교육장

### 소모임 모집

**【나의 역사쓰기】** 여성들의 이야기를 남기는 나의 역사 쓰기 모임(2/4주 화요일)

**【노래패】**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모임

**【얼렁뚱땅 바느질】** 안 입는 옷을 재활용하는 리폼

**【낭독의 발견】** 좋은 시 또는 책 구절을 소리 내어 읽어보는 모임

## 원주여성민우회

모우에 히로코 회원님의

## 인디다큐 페스티벌2011 상영작 선정

회원이신 모우에 히로코님의 '짜오안' 이 인

디다큐 페스티벌 상영작으로 선정

- 일사: 3월 24일(목-3시) 29일(화-8시)
- 장소: 흥대입구 롯데시네마

### 민우회와 함께하는 경제학강좌

자본주의 경제학의 이해, 재테크의 방법, 자녀의 경제교육

- 일사: 4월 6일~6월 1일, 매주 수요일 (총 8강)
- 장소: 밝음신협 2층 회의실

### 봄맞이 베틀시장

우리집엔 필요없지만 쓰임새가 있는 물건들 나누기

- 일사: 3~4월
- 장소: 차 없는 거리, 밝음신협 앞

## 인천여성민우회

### 운영위원회 워크샵

- 일사: 2월 26일 ~ 2월 27일
- 장소: 강화도 송뢰리

### 여성 치유 글쓰기 -樂 서 혁 명-

글읽기, 삶쓰기를 통한 건강한 여성 찾기

- 일사: 4월 5일~6월 26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인천여성민우회 교육장

### 난타-Do Dream-

여성한부모 가족과 함께하는 난타

- 일사: 4월~6월
- 장소: 인천여성민우회 교육장

### 춤추는 인형이 찾아가는 성평등 세상

찾아가는 성평등 인형극단원 양성 교육

- 일사: 4월 26일~9월 6일 매주 화 오전 10시~1시
- 장소: 인천여성민우회 교육장

## 진주여성민우회

### 공공산후조리원 토론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운동

- 일사: 4월 5일
- 장소: 도의회 3층 대회의실

### 시민협동학교 사회적경제 학습

- 일사: 4월 12일~26일 (총 4강)
- 장소: 산업대 산학협력관 1층

### 알뜰살뜰번개시장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 일사: 4월 16일, 5월 21일
- 장소: 신안주공1차A 앞 분수대

### 성교육강사양성교육

- 일사: 3월 24일~5월 3일
- 장소: 진주시 주민협의회

### 대상관계부모교육(ORPT)

- 일사: 4월 11일~5월 30일
- 장소: 진주여성민우회

### 4월회원남의 날

- 일사: 4월 중 • 장소: 미정

## 춘천여성민우회

### 무지개 특특?! '4.27 강원도지사 재보선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

7가지 빛깔, 7가지 이야기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 봐요

- 일사: 4월 초(예정)
- 장소: 민우회 회원 공간 [다꾸리]

### 2011 춘천여성문화제 기획단 모집

춘천여성문화제를 준비 할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여성문화제에 대한 뜨거운 애정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기획단

- 일사: 3월 말 첫 모임
- 장소: 민우회 회원 공간 [다꾸리]

## ○ 민우 알림

### [정정합니다]

● 지난 호(201호), 신입회원 분들의 이름이 편집상 실수로 밀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다시 한 번 정정해서 올립니다. 정원, 정인숙, 정재원, 정지수, 정판순, 정현숙님 회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지난 호의 총회특집 중 “대표인터뷰” 글을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문단 박봉대표의 답변 중 “회원들과 외부인의 이야기를 잘 듣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눈은 한 개이고 귀는 두 개인 이유를 잘 발휘하고 싶다.”는 내용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한 개가 아니라 입이 한 개겠지요, 박봉대표 도깨비설이 나오는 등 의도적으로 오타를 낸 것이냐는 음모론도 떠올랐습니다. 이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대표의 눈은 두 개입니다.

### 신입회원 여러분 반가워요!

2011년 1월 중순 ~ 2011년 3월 중순

강무구	김지은	송경환	이강률	정승화
고윤경	김하늬	송영자	이동욱	전경화
곽미경	김현숙	신봉희	이문영	정다혜
권수정	김현심	신우경	이백만	정복교
권현경	김효정	신진선	이승희	정아람
김기연	너머서교회	신춘금	이윤경	정윤경
김다미	마윤옥	안유리	이윤상	정인숙
김미양	문혜정	안진구	이은정	정현희
김선주	민정애	안찬규	이은지	조경선
김선희	박경옥	양월주	이정완	조도형
김소현	박규건	양정은	이지선	조우석
김숙영	박숙희	양정훈	이지혜	조은혜
김예진	박윤희	염미례	이진희	조혜인
김용호	박은정	오민지	이하나	최덕천
김우열	박정화	오은조	이현숙	최종민
김은아	박제선	유여원	이희수	최행숙
김은정	박종혁	유지인	임보라	태희원
김일란	서중건	유혜연	임형찬	한종대
김일한	서주희	윤진근	장경록	허지원
김 중	성지윤	이가영	장현철	황순석

### 회비인상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회원님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중순 ~ 2011년 3월 중순

김미혜 박하유경(들뜸) 정은선(물결) 조김경하(새음)

공지 이번 호 1/4분기 결산은 3월 달 정산이 되지 않아, 다음 호에 실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식당여성노동자 설문조사

#### 함께 해주세요~

식당을 둘러싼 노동환경,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식당여성노동자와의 ‘만남’을 통해 알아가고자 합니다.

식당여성노동자를 직접 만나는 설문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을 찾습니다.

“내 몸이 언제까지 감당해낼 수 있을까?

집에 들어가 쓰러져 자고 눈뜨면 아침,

똑같은 나날, 언제까지 견강하여

그나마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내 권리? 말할 용기가 없다.”

-2010 식당여성노동자의 이야기

그 첫걸음을 같이 떼고 싶습니다.

식당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의 현실을 묻고

노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골목골목 누벼봅시다.

####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노동환경 만들기 II ‘함께짓는 맛있는 노동’ 설문조사 실천단 모집

- 회원, 학생, 직장인,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에 관심있는 누구내!
- 설문조사기간 : 5월 한 달
- 신청과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02) 737-5763 equallove@womenlink.or.kr
- ※ 식당노동자인 엄마, 언니, 고모, 친구엄마, 친구, 단골식당의 아는 언니, 그리고 나... 설문에 응하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연락주세요.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 설문조사 실천단 첫 만남 : 4월 26일(화) 저녁 7:30분  
한국여성민우회

공정무역 커피 한 잔으로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는



Coffee MOON  
커피문



한 잔의 좋은 커피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어 있게 합니다.  
커피문의 블렌딩 원두(달커피)는 공정무역 생두를 직접 로스팅, 블렌딩한 것으로  
네팔과 페루의 부드러운 신맛과 단맛, 티모르의 적절한 진한 맛이 조화롭게 어울린 맛입니다.  
100% 공정무역, 유기농 커피의 풍부한 바디감과 풍미를 즐겨보세요.



**100% 아라비카, 공정무역, 유기농커피  
이제 <달커피>를 즐겨찾기 하세요!**



<달커피>블렌딩 원두 100g당 5,000원(분쇄/홀빈)

**3만원 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원두주문 : 전화 070-8260-4327, 이메일 coffeemoon@hanmail.net

## 커피문 사업 소개

 카페 운영 및 로스팅 사업

 케이터링 사업

각종 행사, 워크샵 등 신선하고 맛있는 공정무역, 유기농 커피를 제공하는 케이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에는 <달커피>의 향긋함과 함께 해보세요.

 바리스타 교육 및 창업컨설팅 및 실전교육

커피 취미강좌, 바리스타 실전 교육 등 개인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커피의 매력에 빠지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마실수록 뜻깊은 커피 한 잔

사회적 의미를 지닌 각종 행사 지원 및 나눔경영을 지향합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249-10 나루 1층  
전화 : 070-8260-4327 e-mail : coffeemoon@hanmail.net

Korean WomenLink

참여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여성이 웃는다!  
세상이 웃는다!

**고용평등상담**

T. 02-706-5050  
F. 02-736-5766

**미디어운동본부**

T. 02-734-1046  
F. 02-739-1047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T. 02-739-8858  
F. 02-736-5766  
상담 02-335-1858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T. 02-581-1675  
F. 02-3679-2202

**개포매장**

T. 02-445-8703

**반포매장**

T. 02-537-8703

**잠실매장**

T. 02-417-8703

**상암매장**

T. 02-304-8703

**서울남서여성민우회**

T. 02-2643-1253  
F. 02-2643-1252

**생협 사무실**

T. 02-2643-5016

**신정매장**

T. 02-2643-6060

**목동매장**

T. 02-2643-6077

**방화매장**

T. 02-2662-6088

**구로매장**

T. 02-861-6090

**서울동북여성민우회**

T. 02-3492-7141  
F. 02-3493-9221

**생협 사무실**

T. 02-3492-7140

**방학매장**

T. 02-3492-9999

**중계매장**

T. 02-934-7999

**창동매장**

T. 02-900-9958

**고양·파주여성민우회**

T. 031-907-1003  
F. 031-907-5009

상담 031-919-1366

**생협 사무실**

T. 031-918-9774

**주엽매장**

T. 031-919-1774

**마두매장**

T. 031-902-3774

**덕양매장**

T. 031-938-9774

**후곡매장**

T. 031-919-9854

**광주여성민우회**

T. 062-529-0383  
F. 062-529-0384

상담 062-521-1366

**성폭력센터**

T. 062-462-1366

**군포여성민우회**

T. 031-396-0201  
F. 031-394-2343

상담 031-396-0236

**원주여성민우회**

T. 033-732-4116  
F. 033-744-0113

**인천여성민우회**

T. 032-525-2219  
F. 032-525-2256

**진주여성민우회**

T. 055-743-0410  
F. 055-746-9771  
상담 055-746-7462

**생협 사무실**

T. 055-746-7925

**평거매장**

T. 055-746-7077

**춘천여성민우회**

T. 033-255-5557  
F. 033-243-9746



 **한국여성민우회**  
Korean WomenLink

(121-847)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3층

Tel 02-737-5763 Fax 02-736-5766

E-mail minwoo@womenlink.or.kr

홈페이지 www.womenlink.or.kr

블로그 http://womenlink1987.tistory.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womenlink

트위터 @womenlink

